



한글

정답과 해설

통합편

중등 국어 1-1

◆ 정답만 한눈에 보기	02
◆ 정답과 해설	05

정답만 한 눈에 보기

010쪽	1 말하는 이	2 ○	3 비유
011쪽	4 은유법	5 의인법	6 상징
012쪽	7 반복	8 3	9 시각
013쪽	10 ○	11 운율	12 ○
014쪽	1 ○	2 ○	3 시각
	이 시에 사용된 비유 표현▶ 1 ④		
015쪽	4 시조	5 ×	6 ×
	'뫼버들'이 상징하는 의미▶ 2 ②		
017쪽	1 ⑤	2 ①	3 ④
	4 ④		
	5 빛나간 야구공 하나		
019쪽	1 ②	2 ①	3 ①
	4 ④		
	5 봄빛, 새끼 고양이의 눈		
021쪽	1 ④	2 ①	3 ③
	4 ③		
	5 비유한 시어: 공중목욕탕, 표현 방법: 직유법		
023쪽	1 ④	2 ①	3 ④
	4 ①		
	5 편지, 새살		
025쪽	1 ④	2 ③	3 ③
	4 ②		
	5 푸른 바다		
027쪽	1 ⑤	2 ③	3 ③
	4 ⑤		
	5 ㄱ: 내, 고개, ㄴ: 숲, 마을		
029쪽	1 ⑤	2 ④	3 ④
	4 ①		
	5 포용하는 태도와 과묵한 태도		
032쪽	1 사건	2 ○	3 내적
033쪽	4 ×	5 절정	6 결말
034쪽	7 ×	8 인칭 관찰자 시점	9 ○
035쪽	10 ○	11 ×	12 ○
036쪽	1 ○	2 ○	3 머슴
	'뫼'이 상징하는 의미▶ 1 ⑤		
037쪽	4 ○	5 뫼	
	'용이'와 아이들의 갈등 양상▶ 2 ④		
038쪽	발단 - 거스름돈		
039쪽	1 ④	2 ④	3 ④
	4 ④		
	5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은 가지가지들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자.		
040쪽	전개 1 - 수만 전개 2 - 삼촌		
041쪽	1 ①	2 ④	3 ②
	4 ②		
042쪽	전개 3 - 돈 위기 1 - 숙모		
043쪽	위기 2 - 점순	1 ②	2 ③
	3 ②	4 도적질	
044쪽	절정 - 교통사고	결말 - 삼촌	
045쪽	1 ⑤	2 ④	3 ⑤
	4 ③		
	5 하늘		
046쪽	1 ④	2 ⑤	3 ③
	4 '문기'는 (불장 안에 있던) '숙모'의 돈을 훔쳤다.		

047쪽	5 ③	6 ②	7 ③	8 ⑤
048쪽	발단 - 옛장수			
049쪽	1 ②	2 ⑤	3 ④	4 ④
	5 • 공간적 배경: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산기슭 마을 • 계절적 배경: 봄			
051쪽	1 ③	2 ⑤	3 ④	4 '남이'와 만나고(마주치고) 싶어서
052쪽	전개 - 고무신			
053쪽	위기 - 남이	1 ④	2 ①	
	3 ④	4 어느 날 저녁녘에 우연히도 남이 아버지가 찾아왔다.		
054쪽	절정 - 옛 결말 - 울음 고개			
055쪽	1 ②	2 ②	3 ③	4 ①, ③
	5 정든 마을과 '옛장수', 주인집 가족을 두고 떠나 고 싶지 않다.			
056쪽	1 ②	2 ⑤	3 ⑤	4 벌
057쪽	5 ③	6 ③	7 ③	8 ①
058쪽	발단 - 주인 영감			
059쪽	1 ⑤	2 ④	3 ⑤	4 ③
	5 육친애			
060쪽	전개 - 물건값			
061쪽	1 ②	2 ④	3 ④	4 ④
	5 ⑤			
062쪽	위기 - 자전거			
063쪽	1 ④	2 ②	3 ⑤	4 ④
	5 도둑놈 꼴(이다)			
064쪽	절정 - 거부감(혐오감) 결말 - 아버지			
065쪽	1 ①	2 ②	3 ④	4 ①
	5 '수남'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 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066쪽	1 ⑤	2 ⑤	3 ⑤	4 쾌감
067쪽	5 ④	6 ②	7 ④	8 ④
	9 (자신에게) 손해가 안 났기 때문에			
069쪽	1 ③	2 ②	3 ①	4 ②
	5 ③			
070쪽	발단 - 수택			
071쪽	1 ④	2 ⑤	3 ②	4 ③
	5 보리밥, 양은 도시락, 허연 깍두기			
072쪽	전개 - 깍두기			
073쪽	1 ①	2 ②	3 ②	4 ⑤
	5 '수택'이 혼자서 밥을 먹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074쪽	위기 - 소문	절정 - 신문	결말 - 수택	
075쪽	1 ③	2 ②	3 ③	4 '수택'과 '나'가 사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보여 주 려) 한다.
076쪽	1 ③	2 ①	3 ⑤	4 ④
077쪽	5 ②	6 ⑤	7 ⑤	8 ④
	9 깍두기를 나눠 먹지 않고, 신문을 '수택'의 서랍 에 도로 넣었다.			

079쪽	1 ② 2 ④ 3 ⑤ 4 ⑤ 5 소인, 대감
080쪽	발단 - 서자
081쪽	1 ④ 2 ① 3 ② 4 ④ 5 ③
082쪽	위기 - 조선
083쪽	1 ① 2 ③ 3 ⑤ 4 사회 제도 (적서 차별 제도) 때문에 이루지 못한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084쪽	1 ④ 2 ⑤ 3 ⑤ 4 ㉔: 소자, ㉕: 아버지
085쪽	5 ④ 6 ② 7 ④ 8 ③
086쪽	1 × 2 하강 3 막
087쪽	4 × 5 시나리오 6 ×
088쪽	1 ○ 2 병 3 × 이 희곡의 특징 ▶ 1 ④
089쪽	4 간 5 뱀장어 6 × 절정에 나타난 갈등 양상 ▶ 2 ③
091쪽	1 ③ 2 ③ 3 ⑤ 4 ②
093쪽	발단 - 갈등 1 ③ 2 ③ 3 ②
095쪽	1 ⑤ 2 ① 3 ② 4 하기 싫은 건 다 그놈 시키고, 나는 매일 놀기만 할 텐데.
096쪽	전개 - 손톱
097쪽	1 ⑤ 2 ④ 3 ③ 4 ①
098쪽	1 ② 2 ⑤ 3 ②
099쪽	4 ⑤ 5 ⑤ 6 ④ 7 쥐에게 자 신의 손톱을 먹여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 고 한다.
100쪽	1 × 2 × 3 중수필
101쪽	4 ○ 5 ○ 6 ×
102쪽	1 ○ 2 어머니 3 ×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 1 ⑤
103쪽	4 × 5 × 6 랜չ아 이 글이 주는 감동이나 즐거움 ▶ 2 ④
104쪽	처음 - 친구
105쪽	1 ③ 2 ⑤ 3 ④ 4 ③ 5 망망대해
106쪽	가운데 - 우정 끝 - 벗
107쪽	1 ④ 2 ③ 3 ⑤ 4 ⑤ 5 탑, 열매
110쪽	1 처음 2 일반화 3 ○
111쪽	4 ○ 5 주제 6 ×
112쪽	1 × 2 × 3 × 이와 같은 글을 요약하는 방법 ▶ 1 ③
113쪽	4 대피 5 거실 6 도난, 안쪽 이 글의 통일성 판단 ▶ 2 ③
114쪽	처음 - 석빙고

115쪽	1 ② 2 ② 3 ② 4 ①, ② 5 ③
116쪽	가운데 - 저장 끝 - 슬기
117쪽	1 ③ 2 ④ 3 ⑤ 4 ⑤ 5 조상(들)의 슬기
118쪽	처음 - 첫 만남
119쪽	1 ③ 2 ③ 3 ⑤ 4 가설 검증 바이어스
120쪽	가운데 - 가설 검증 바이어스 끝 - 당부
121쪽	1 ② 2 ④ 3 ⑤ 4 ③ 5 ②
123쪽	1 ① 2 ② 3 ③ 4 ㉔을 (라) 문단으로 이동해야 한다.
124쪽	1 본론 2 설득 3 ○
125쪽	4 × 5 기억, 집중 6 목적
126쪽	1 × 2 ○ 3 기초 과학 정보나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한 이 글의 내용 예측 ▶ 1 ②
127쪽	4 보편적 5 ○ 6 책임 구조에 따른 이 글의 내용 요약 ▶ 2 ⑤
128쪽	서론 - 기후 변화
129쪽	1 ① 2 ③ 3 ④ 4 ⑤ 5 더위의 고통은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 아니며, 오 히려)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30쪽	본론 - 기후 변화 결론 - 인식
131쪽	1 ⑤ 2 ④, ⑤ 3 ④ 4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132쪽	서론 - 생태계
133쪽	1 ② 2 ② 3 ④ 4 포식 동물 이 사라지자 저회끼리 먹이를 두고 경쟁이 심해졌 기 때문이다.
134쪽	본론1 - 실험 본론2 - 실험제
135쪽	결론 - 생명의 그물 1 ② 2 ④ 3 ② 4 생명의 그물
138쪽	1 대화 2 언어폭력 3 ○
139쪽	1 × 2 ○ 3 예림 이 대화에 나타난 언어폭력 ▶ 1 ⑤
141쪽	1 ⑤ 2 ③ 3 ④ 4 ⑤
142쪽	1 ○ 2 연설 3 ×
143쪽	1 × 2 × 3 ○ 이 방송 보도의 타당성 판단 ▶ 1 ⑤
145쪽	1 ② 2 ③ 3 ③ 4 최준서에 게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146쪽	1 목적 2 준비 3 ○
147쪽	1 × 2 ○ 3 감사 인사 이 면담의 목적과 면담 내용 ▶ 1 ④
149쪽	1 ② 2 ⑤ 3 ⑤ 4 ④

151쪽

1 ② 2 ③ 3 ② 4 책은 사람을 만드는 기본 영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책 읽기가 기본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152쪽

1 ○ 2 논제 3 ○

153쪽

1 ○ 2 × 3 ○
학급 회의에 참여한 반 아이들의 태도 ▶ 1 ④

155쪽

1 ① 2 ③ 3 ⑤ 4 ①
5 ②

157쪽

1 ⑤ 2 ④ 3 ② 4 ①
5 나라

159쪽

1 ③ 2 ⑤ 3 ② 4 축제 정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62쪽

1 언어 2 ○ 3 필연적 4 자의성

163쪽

5 사회적 6 × 7 역사성 8 ○
9 창조성

164쪽

1 (1) -㉠ (2) -㉡ (3) -㉢ (4) -㉣
2 (1) ㉠ (2) ㉡ (3) ㉢ (4) ㉣
시험에는 이렇게 ▶ 1 ② 2 ④

165쪽

1 언어 2 ② 3 ④ 4 ③
5 ② 6 ②

166쪽

7 (언어의) 창조성 8 ② 9 ①
10 ④, ⑤ 11 (1) 자의성, (2) 사회성, (3) 창조성, (4) 역사성

167쪽

① 의사소통 ② 필연적 ③ 사회성
④ 시간 ⑤ 창조성

168쪽

1 품사 2 × 3 가변어 4 체언
5 ○

169쪽

6 대명사 7 부사 8 형용사 9 ○
10 ×

170쪽

11 수사 12 × 13 동사 14 형용사
15 활용

171쪽

16 관형사 17 ○ 18 × 19 2
20 ○

172쪽

1 (1) • 형태가 변하는 낱말: 기쁘다, 달리다, 흔들다, 예쁘다 • 형태가 변하지 않는 낱말: 매우, 설악산, 구름, 꽃 (2) • '풍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낱말: 설악산, 구름, 꽃 • '정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낱말: 매우 (3) •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달리다, 흔들다 •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 기쁘다, 예쁘다 •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설악산, 구름, 꽃
2 •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운서, 영화, 민호 •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주말, 약속, 공포 •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낱말: 너, 우리, 거기 • 수량을 나타내는 낱말: 둘, 셋 •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 첫째, 둘째
3 (1) 읽는다, 일어났다, 떠든다 (2) 어둡다, 조용한데
시험에는 이렇게 ▶ 1 ③ 2 ⑤ 3 내려서, 하얗다

173쪽

4 (1) 바짝 (2) 새 (3) 온 (4) 어떤, 가장
•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새, 온, 어떤
•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 바짝, 가장

5 (1) -㉠ (2) -㉡ (3) -㉣ 6 • 느낌이 나 놀람을 나타내는 낱말: 이런 • 부름을 나타내는 낱말: 여보세요 • 대답을 나타내는 낱말: 네
시험에는 이렇게 ▶ 4 ② 5 ③ 6 ④

174쪽

1 ⑤ 2 ③ 3 ② 4 ⑤
5 ④ 6 ① 7 ㉠: 비, 우산, 가방, 사탕 ㉡: 걱정, 우정

175쪽

8 ④ 9 ①, ②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④ 15 ⑤

176쪽

16 예쁘다, 가볍다 / 형용사 17 ⑤
18 ④ 19 ① 20 ② 21 ⑤
22 ④ 23 ③

177쪽

24 ⑤ 25 ③ 26 ① 27 ③
28 ② 29 ① 30 ③ 31 ⑤

178쪽

32 ④ 33 ④ 34 ① 35 명사: 2개, 수사: 1개, 형용사: 1개, 동사: 1개, 관형사: 1개, 조사: 2개 36 ① 37 ㉠~㉣ 중에서 품사가 다른 낱말은 ㉠('두')이다. '두'는 의미를 기준으로 관형사, 기능을 기준으로 수식어, 형태를 기준으로 불변어에 속한다. 38 ①

179쪽

① 형태 ② 체언 ③ 이름 ④ 관형사
⑤ 용언 ⑥ 감탄사 ⑦ 움직임

180쪽

1 ○ 2 고유어 3 모양 4 ○
5 외래어

181쪽

6 × 7 × 8 전문어 9 세대
10 직업 11 은어

182쪽

1 • 고유어: 치마, 나물, 떡, 지우개 • 한자어: 색연필, 냉면, 체육복 • 외래어: 볼펜, 티셔츠, 아이스크림 2 색채 3 (1) 의향, 호감, 심정 (2) 한자어, 보완 4 햄버거, 어렵다
시험에는 이렇게 ▶ 1 ③ 2 ⑤

183쪽

5 표준어, 지역 방언 6 의사소통 7 세대
시험에는 이렇게 ▶ 3 ⑤ 4 전문어 5 ①

184쪽

1 ② 2 ④ 3 ④ 4 ①
5 ② 6 ① 7 ②

185쪽

8 ① 9 ⑤ 10 ① 11 ④
12 ⑤ 13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학생이 청소년 세대가 주로 쓰는 줄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186쪽

14 ② 15 ② 16 ⑤ 17 ⑤

187쪽

① 고유어 ② 외래어 ③ 사회 ④ 전문어
⑤ 은어

I 시가 문학

1 시/시조

차근차근 개념 이해

010~013쪽

- 1 말하는 이 2 ○ 3 비유 4 은유법 5 의인법
6 상징 7 반복 8 3 9 시각 10 ○ 11 운율
12 ○

바로바로 개념 적용 봄은 고양이로다 / 뫼비들 가려 꺾어~

014~015쪽

◆ 봄은 고양이로다

- **작품 설명:** 이 시는 고양이의 모습에 봄의 이미지를 대입하여 생명력이 가득하며 포근하고 따뜻한 봄의 속성을 감각적이면서도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도다’, ‘-아라’와 같은 영탄적 어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핵심 보기

표현 방법	시구	원관념	보조 관념
은유법	봄은 고양이로다	봄	고양이
직유법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양이의 털	꽃가루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고양이의 눈	금방울

◆ 뫼비들 가려 꺾어~

- **작품 설명:** 이 시조는 조선 시대 기생이었던 홍량이 한양으로 떠나는 임(최경창)에게 보냈다고 전해지는 작품이다. 임에 대한 사랑의 증표이자 말하는 이 자신의 분신을 상징하는 ‘뫼비들’을 통해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핵심 보기

자연물	상징적 의미
뫼비들	•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말하는 이의 분신 • 임에게 보내는 순수한 사랑의 증표 • 말하는 이의 마음을 임에게 전하는 매개체

지문 체크 1 ○ 2 ○ 3 시각 4 시조 5 ×
6 ×

이 시에 사용된 비유 표현 1 ④

‘뫼비들’이 상징하는 의미 2 ②

- 1 2연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크고 동그랗게 빛나는 ‘고양이의 눈’을 ‘금방울’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2 ‘뫼비들’은 말하는 이가 임에게 보내는 자연물로, 임에 대한 말하는 이의 사랑을 상징하며 자신을 잊지 말라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소재이다.

탐독토다

실력 쌓기 01 유성

016~017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다양한 비유 표현과 심상을 활용하여,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의 풍경과 그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빛나간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밤하늘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 핵심 보기

표현 방법	시구	효과
은유법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반짝거리는 별들이 떠 있는 밤하늘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빛나간 야구공 하나	별들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함.
의인법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진다.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리는 함성.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여 생동감을 줌.

1 ⑤ 2 ① 3 ④ 4 ④ 5 빛나간 야구공 하나

- 1 이 시는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의 모습을 은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시에는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인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지만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과 유성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어두운 이미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이 시를 통해서는 말하는 이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 2 이 시에서는 은유법을 활용하여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3 ①은 의인법을 활용하여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④도 의인법을 활용하여 꽃잎이 지는 모습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은유법을 사용하여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말로,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대유법은 사물의 한 부분이나 특징 등을 들어 그 전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③ 직유법을 사용하여 ‘새살’을 ‘딱정벌레 날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⑤ 반복법을 사용하여 ‘꽃 피네’, ‘꽃이 피네’처럼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4 ①은 귀로 소리를 듣는 듯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유성’이 나타나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 5 이 시에서는 별들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빛나간 야구공 하나’에 비유하여 ‘유성’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독답토익

실력 쓰기 02 포근한 봄

018~019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봄눈을 봄빛과 새끼 고양이의 눈에 빚대어 봄눈이 포근하고 부드럽게 내리는 풍경을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동일한 시어('봄눈')와 동일한 문장 구조('~위에 쌓이는 봄눈')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말하는 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원관념		보조 관념
봄눈	• 포근함. • 부드러움.	• 봄빛 • 새끼 고양이의 눈
↓		
효과		
• '봄눈'이 주는 느낌을 구체적이면서도 참신하게 표현함. •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1 ② 2 ① 3 ① 4 ④ 5 봄빛, 새끼 고양이의 눈

- 1 이 시는 말하는 이의 시선 이동(담장 → 나무 → 마당 → 새끼 고양이의 눈)에 따라 마당 곳곳에 '봄눈'이 내리는 모습을 참신하고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① 3연에서 새끼 고양이가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앉아 있다고 하였으므로, 새끼 고양이의 활발한 움직임에서 봄의 생기를 느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봄으로, 말하는 이는 봄에 내리는 봄눈의 포근한 느낌을 그리고 있다.

④ 이 시는 봄눈을 새끼 고양이의 눈에 비유하여 봄눈이 지닌 부드러운 느낌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는 시각적, 촉각적 심상을 통해 봄눈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후각적 심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 2 2연에서 '~위에 쌓이는 봄눈'이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봄눈'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3 이 시는 파스한 봄에 내리는 눈의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봄눈의 정취를 그리고 있다.

- 4 ㉠은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눈'을 '봄빛'에 빚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도 '~같은'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논길'을 '가르마'에 빚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나'를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빚대어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의인법을 사용하여 사람이 아닌 '풀'이 사람처럼 눕고 울었다고 표현하였다.

③ 의인법을 사용하여 사람이 아닌 '배추'에게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⑤ '구름'을 '한 다발 장미'에 빚대어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5 이 시에서는 '봄눈'을 '봄빛'과 '새끼 고양이의 눈'에 빚대어 '봄눈'이 주는 포근함과 부드러움을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독답토익

실력 쓰기 03 나무들의 묵

020~021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다양한 비유 표현을 활용하여 색색의 꽃을 피우는 나무들로 가득한 봄 산의 풍경을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더불어 시인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것은 새로운 생명(씨앗)을 맞이하기 위한 소중한 일임을 일깨우고 있다.

• 핵심 보기

표현 방법	사구	효과
의인법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모습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샤워(목욕)한다고 표현하여 참신한 느낌을 줌.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묵묵 중이야	
은유법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강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나무들에 색색의 꽃이 핀 봄 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직유법	온 산이 공중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 리고 있어.	나무들이 부지런히 색색의 꽃을 피우는 봄 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함.

1 ④ 2 ① 3 ③ 4 ③ 5 비유한 시어: 공중목욕탕.
표현 방법: 직유법

- 1 이 시는 색색의 꽃을 피우는 나무들과 그런 나무들로 가득한 산의 풍경을 노래한 시로,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것은 씨앗을 마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시인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려는 소중한 일임을 말하고자 하였다.

- 2 이 시는 '저것 봐', '~있잖아', '~이야', '~있어' 등과 같이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3 ㉠은 꽃을 피우는 나무들의 모습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샤워를 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 4 [A]는 나무들에 핀 색색의 꽃을 '거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고(은유법), <보기>는 비유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려는 대상인 꽃을 직접 설명하였다. 비유 표현을 사용한 [A]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보기>에 비해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준다.

오답 풀이 ① 표현하려는 대상인 꽃들을 사실적으로 전달한 것은 <보기>이다.

② 비유 표현을 사용한 [A]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보기>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유사한 문장 구조는 [A]와 <보기> 모두에서 반복되고 있다. [A]는 '~은(는) ~ 거품이'가, <보기>는 '~은(는) ~ 꽃이'가 반복되고 있다.

⑤ [A]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비유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보기>에 비해 참신한 느낌을 준다.

- 5 이 시의 5연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꽃이 활짝 핀 온 산의 모습을 거품이 부글거리는 '공중목욕탕'에 비유함으로써 봄 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고 나아가 봄의 생동감과 왕성한 생명 활동을 표현하고 있다.

- **작품 설명:** 이 시는 상징적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힘 들고 외로운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 낸 작품이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는 '따뜻한 함박눈', '잠 못 든 이'에게 전하는 '편지', 상처 위에 돋는 '새살'과 같이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함박눈'과 '진눈깨비'의 대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핵심 보기

긍정적 의미의 시어	부정적 의미의 시어
• 함박눈 • 편지 • 새살	• 진눈깨비 • 바람 • 깊고 붉은 상처
위로, 격려, 희망 등을 상징함.	무관심, 고통, 슬픔 등을 상징함.

1 ④ 2 ① 3 ④ 4 ① 5 편지, 새살

-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되지 말자', '~되어 내리자', '~되자'라는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여 '진눈깨비'처럼 부정적 존재가 되지 말고 '함박눈'처럼 따뜻한 존재가 되자는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는 동시에 독자도 자신의 바람에 함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함박눈'과 '진눈깨비'는 각각 시인이 긍정적,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시어이다. '눈'을 보며 말하는 이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시는 '~자'라고 끝나는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전하고 있을 뿐,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의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는 '함박눈', '잠 못 든 이'에게 전하는 '편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고 말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3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되지 말자고 하는 '진눈깨비'는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지 않고 허공에서 훑날린다. 즉 '진눈깨비'는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한 존재이다. 반면에 말하는 이가 되자고 하는 '함박눈'은 마을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리는 눈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이다.

- 4 ㉔는 삭막하고 고달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이자 상처 받고 소외된 이웃을 의미한다.

- 5 '편지'와 '새살'은 '함박눈'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 **작품 설명:** 이 시는 '고래', '푸른 바다' 등의 시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이상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 핵심 보기

시어	상징적 의미
푸른 바다	꿈을 키우고 목표를 세워야 하는 젊은 시절(청소년기의 삶)
고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바다를 가치 있게 만드는 존재
별	꿈과 목표, 희망과 이상

1 ④ 2 ③ 3 ③ 4 ② 5 푸른 바다

- 1 이 시의 시인은 '푸른 바다', '고래', '별' 등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사랑하면서 꿈을 이루기를 당부하고 있다.

- 2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청년이 아니지'라는 시구에서 '고래'가 꿈과 목표,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3 ㉑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전달하는 상징이 사용된 표현이고, <보기>는 상징이 사용되지 않은 표현이다. ㉑과 같이 표현하면 <보기>에 비해 시어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작품의 의미가 풍부해진다.

오답 풀이 ①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보기>가 아니라 상징 표현을 사용한 ㉑이다.

② <보기>는 일상어로 표현하여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보기>가 아니라 상징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한 ㉑이다.

④ ㉑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는 상징이 사용되었다.

⑤ ㉑은 상징 표현을 사용한 시구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하면 시인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 4 이 시의 시인은 이상과 꿈을 추구하는 존재를 '고래'로 상징하여 표현하였고, 고래가 바라보는 '별'은 추구하고자 하는 꿈, 이상, 소망을 의미한다. ㉑을 통해 시인은 청소년들이 '별' 즉 꿈과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5 이 시에서 '푸른 바다'는 꿈과 목표, 이상을 세워야 하는 청소년기의 삶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보충 자료

| 비유와 상징의 차이 |

비유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함께 나타남.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의미 관계가 '1 : 1'임. •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큼.
상징	•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고 보조 관념만 나타남.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의미 관계가 '다수 : 1'임. •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적거나 없음.

토답토닥

실력 쌓기 06 새로운 길

026~027쪽

- 작품 설명: 이 시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고백적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시인은 길에 인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길을 걸어갔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핵심 보기

시어	상징적 의미
길	삶, 인생
내, 고개	고난, 어려움
숲, 마을	희망, 평화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로,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존재

1 ⑤ 2 ③ 3 ③ 4 ⑤ 5 ㄱ: 내, 고개 ㄴ: 숲, 마을

-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걸어갔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하는 이의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내용으로 시가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없으며, 말하는 이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② 말하는 이는 길을 걷고 있으며 이별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2연에서 말하는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음을 말하고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④ 말하는 이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희망과 평화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2 이 시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1연과 5연에서 '~를 ~서 ~로'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② 3연에서 나열하고 있는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길에서 만난 다양한 존재로,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존재이다.

④ 1연과 3연에서는 각 연의 1행과 2행에 유사한 문장 구조의 시구를 나란히 배열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한다. 이 시에서는 '인생'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길'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 3 이 시는 1연을 마지막 연인 5연에서 다시 반복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4음보의 율격은 정형시인 시조에서 나타나는 운율이다. 이 시는 자유시로 내재율이 드러난다.

② 말의 순서를 바꾸어 변화를 주는 도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를 ~서 ~로'와 같이 유사한 소리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연에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시는 각 연 안에서 행마다 음절의 수가 대체로 비슷하다.

- 4 ㉠은 시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내용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말하는 이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5 이 시에서 '내'와 '고개'는 말하는 이가 삶의 길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고, '숲'과 '마을'은 말하는 이가 가고자 하는 평화로운 공간, 즉 희망과 평화를 의미한다.

토답토닥

실력 쌓기 07 오우가

028~029쪽

- 작품 설명: 이 시조는 조선 시대의 문신인 윤선도의 작품으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 삼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각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자연물이 지닌 덕을 예찬하였다.

• 핵심 보기

자연물	속성과 상징적 의미
물	• 깨끗함(청렴함). • 그치지 않음(영원성).
바위	• 변하지 않음(불변성).
소나무	• 깨끗함(지조와 절개).
달	• 온 세상을 다 비춤(포용성). • 보고도 말이 없음(과묵함).

1 ⑤ 2 ④ 3 ④ 4 ① 5 포용하는 태도와 과묵한 태도

- 1 이 시조에는 주로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조는 자연물인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자신의 친구라고 하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② 제1수의 초장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며 다섯 벗을 소개하고 있다.

③ 자연물이 지닌 속성을 지조와 절개 같은 유교의 이념과 연결 지어 예찬하고 있다.

④ 제2수의 초장과 중장, 제3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짝 지어 표현하고 있다(대구법). 또한 제3수의 중장, 제4수의 중장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설의법).

- 2 '물'은 그치지 않는 속성 즉, 영원성과 지속성을 지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구름'과 '바람'은 쉽게 변하는 속성(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 3 '바위'와 '솔(소나무)'은 가변성을 지닌 '꽃', '풀', '잎'과 달리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존재들이다.

- 4 <보기>에서는 국화를 의인화하여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이 시조에서도 물, 바위, 소나무, 달 등의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자연물이 지닌 속성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자연물에 대한 예찬이 드러난다는 것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 5 제6수에서 '달'은 만물을 비추는 넓은 마음(포용성)과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한 태도를 지녔다고 노래하고 있다.

보충 자료

| 오우가 <제5수> |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는고
저렇게 사철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II 산문 문학

1 소설

차근차근 개념 이해

032~0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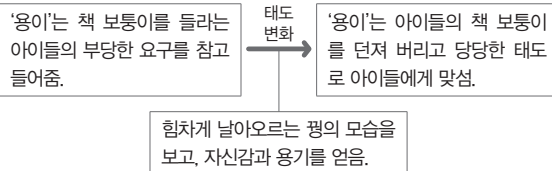
- 1 사건 2 ○ 3 내적 4 × 5 절정 6 결말
7 × 8 1인칭 관찰자 시점 9 ○ 10 ○ 11 ×
12 ○

바로바로 개념 적용 평가

036~037쪽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머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오던 소년 '용이'가 꿩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꿩'은 '용이'의 심리와 행동에 변화를 불러온 소재로 용기와 자유, 생명력, 자신감 등을 상징한다.

· 핵심 보기



자문 체크 1 ○ 2 ○ 3 머슴 4 ○ 5 꿩

'꿩'이 상징하는 의미 1 ⑤

'용이'와 아이들의 갈등 양상 2 ④

- 1 '용이'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들어 주었다. 그러나 꿩을 본 후 새로운 힘을 얻고 아이들에게 맞서기로 하였으므로 꿩은 용기, 자신감, 생명력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2 (마)에서 '용이'가 책 보통이를 도로 가져오라는 아이들에게 당당히 맞서자 아이들은 '용이'의 기운에 놀려 자신들의 책 보통이를 찾으러 가며 갈등이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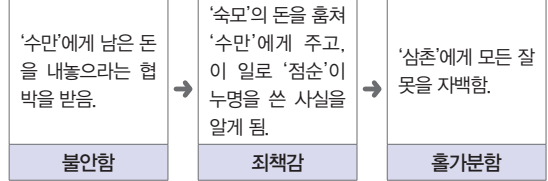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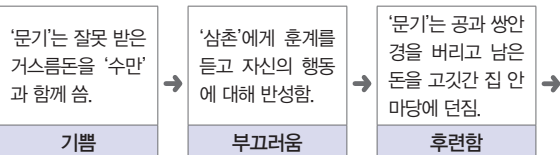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하늘은 맑건만 ①

038~039쪽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소년 '문기'가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뒤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다.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 '문기'가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그리고 심리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양심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소주제 발단 거스름돈

- 1 ④ 2 ④ 3 ④ 4 ④ 5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은 가지가지들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자.

- 1 (가)는 이 소설의 발단 부분으로, 발단에는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난다. (가)에서 '문기'는 며칠 전 고깃간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일을 회상하고 있다. 이 일은 앞으로 '문기'가 겪게 되는 사건의 실마리가 된다.

· 오답 풀이

- ① 갈등이 시작되는 구성 단계는 전개이며, (가)에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⑤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감과 위기감이 드러나는 구성 단계는 위기이며, (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긴장감과 위기감이 느껴지는 않는다.
- ③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구성 단계는 절정이다.

- 2 ①, ⑤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화폐와 화폐 단위이다. ②, ③은 예전에는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④는 현재에도 사용하는 말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이 아니다.

- 3 '수만'은 '문기'가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고, '문기'에게 '숙모'를 시험하는 행동을 시키며 거스름돈을 함께 쓰라고 한다. '문기'는 '수만'의 제안에 머뭇거리면서도 '수만'이 시키는 대로 '숙모'에게 잔돈만 내어놓고 남은 돈을 함께 쓰기로 한다. 이를 통해 '문기'의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수만'의 대담하고 영악한 성격을 알 수 있다.

- 4 [A]에서 '문기'는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남이 하래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싶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문기'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수만'에게 미루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 오답 풀이

- ① '숙모'가 '문기'가 건넨 거스름돈을 두 번이나 자세히 세어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씻는 모습으로 보아 '숙모'가 돈을 잘못 준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돈은 '수만'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문기'가 가져온 것이다. '수만'이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근거가 바로 '문기'가 가져온 돈을 쓴다는 것이다.
- ③ '문기'는 돈을 쓰자는 '수만'의 꾀에 돈을 쓰면 어떻게 하냐고 머뭇거리다. 이 모습을 통해 '문기'가 더 받은 거스름돈을 쓰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고깃간 주인'이 돈을 잘못 거슬러 준 것은 사실이지만 '문기'가 이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5 '수만'은 '숙모'가 '문기'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본 후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것을 해 보자고 하였다.

토요토박

실력 쌓기 01 하늘은 맑건만 ②

040~041쪽

소주제 전개1 수만 전개2 삼촌

1 ① 2 ④ 3 ② 4 ②

1 (라)에서 '문기'는 '수만'과 함께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마)에서 '삼촌'에게 훈계를 들으면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바)에서는 이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는다. 마침내 (사)에서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에 돌려주고 나서야 내적 갈등을 해결하며 홀가분함을 느낀다.

2 (마)~(바)에서 '문기'는 '삼촌'에게 훈계를 듣고 난 후 '삼촌'을 속인 사실과 써서는 안 될 돈을 쓴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오답 풀이 ㄱ. (마)에서 '문기'는 '삼촌'에게 훈계를 듣는다. '문기'는 '삼촌'의 말씀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으며 따라서 '삼촌'과 '문기'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ㄴ. 이 글에서는 '삼촌'의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고, 주인공인 '문기'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기'가 겪는 내적 갈등은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에 던짐으로써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3 '삼촌'은 '문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다만 '문기'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문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활 태도에 대해 훈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삼촌'이 "네 입으로 수만이가 왔더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날 속이기가 하겠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문기'를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삼촌'이 '문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구 사람을 만들어 주려구 애쓰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문기'의 처지가 어려워 '삼촌'의 집에서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삼촌'의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구.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라는 말과 '삼촌'의 집에서 살고 있는 '문기'의 처지로 보아 '문기'의 아버지는 '문기'를 돌보는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⑤ '삼촌'은 '문기'를 데리고 살면서 공부도 시키고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훈계도 해 주는 인물로 '문기'의 부모 대신에 '문기'가 바르게 자라도록 애쓰는 인물이다.

4 '문기'는 '삼촌'의 훈계를 듣고 난 후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문기'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1 (아)~(차)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문기'와 그런 '문기'를 협박하는 '수만'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수만'과의 외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치고, 이 행동은 또 다시 '문기'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문기'의 행동은 불완전한 갈등 해결 방안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이 글에는 주인공인 '문기'의 내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문기'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저항하는 인물이 아니다.

ㄴ. 하나의 갈등이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여 사건이 얹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행동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차)에서 '문기'는 '수만'의 협박에 대꾸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지만, 이는 '수만'에게 잘못을 상기시키려는 행동이 아니라 '수만'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폭로할까 봐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아)에서 쓰고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에 던져서 이제 돈이 없다고 말하는 '문기'의 말에 '수만'은 '문기'가 혼자 돈을 쓰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② (자)에서 '수만'은 교실 칠판에 '문기'를 압박하는 글귀를 써 놓고, 골목에서 '문기'를 쫓아다니며 남은 돈을 가져오라고 '문기'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수만'의 행동에 '문기'는 자신의 잘못이 알려질까 봐 초조해하고 있다.

④ (카)에서 '문기'는 '숙모'가 '점순'이 돈을 가져갔다고 말하자 속으로 돈을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타)에서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쫓겨난 '점순'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문기'가 밤을 뜯어내서 새우는 것으로 보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차)에서 '문기'는 '수만'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친다. '문기'의 행동은 더 받은 거스름돈을 썼던 잘못이 알려질까 두려워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커지게 한 것이므로 어리석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수만'은 남은 거스름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가 도적질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문기'를 협박하고 있다.

토요토박

실력 쌓기 01 하늘은 맑건만 ④

044~045쪽

소주제 절정 교통사고 결말 삼촌

1 ⑤ 2 ④ 3 ⑤ 4 ③ 5 하늘

1 (티)에서 '문기'는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말하고 후련해하며 내적 갈등을 해결하였다. '삼촌'이 '문기'의 잘못을 다 알게 되었으나 이로 인한 '삼촌'과 '문기'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파)에서 '문기'는 수신 시간에 '선생님'이 정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며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선생님'이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느낀다.

② (거)에서 '문기'는 '담임 선생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자백할 결심으로 찾아가지만, 결국 아무것도 실토하지 못하고 돌아온다.

토요토박

실력 쌓기 01 하늘은 맑건만 ③

042~043쪽

소주제 전개3 돈 위기1 숙모 위기2 점순

1 ② 2 ③ 3 ② 4 도적질

③ (너)에서 '문기'는 '선생님' 집에서 나와 집에 가는 길에 '숙모'와 '삼촌' '점순'에 대한 두려움에 내적 갈등을 하다 자동차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한다.

④ (더)에서 '문기'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2 '문기'는 자신의 잘못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다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고는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문기'에게 누구나 잘못을 저지러 수 있으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조언할 수 있다.

3 ㉠~㉢은 모두 죄책감에 시달리는 '문기'의 모습으로, 이를 통해 '문기'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한 '문기'가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을 잃는 모습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숙모'에게 훔친 돈을 갚기 위해 밥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인해 입맛이 없어서 밥을 덜 먹는 것이다.

② 수신 시간에 정직의 중요성을 말하며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어보다가 시선이 우연히 '문기'에게 머문 것이지만, 잘못된 일이 있는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며 ㉠과 같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③ ㉢은 다른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등을 친 것인데도 '문기'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다.

④ ㉢은 몸은 집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은 집과 멀어지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4 '문기'는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말한 후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맑아지고 몸도 가뿐해지는 것을 느낀다.

5 (하)에서 '문기'는 양심을 속이고 잘못을 저지른 자신이 맑은 하늘을 바라볼 자격이 없다고 하였고, (더)에서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한 후에는 하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하늘'은 양심, 정직 등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⑤ 이 작품은 주인공인 '문기'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2 '문기'는 고깃간 주인에게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지만 이를 되돌려 주지 않은 일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다.

3 '수만'이 '문기'를 쫓아다니며 도적질을 한 사실을 밝히려겠다고 하는 것은, '문기'의 잘못을 지적하여 '문기'의 양심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문기'를 협박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수만'은 '문기'를 협박해서 결국 '문기'에게서 돈을 받아 낸다.

② (나)에서 '문기'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다)에서와 같이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돌려주었다.

④ (나)에서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뉘 수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했지만 자신의 허물을 마주하고 잘못을 깨닫고 있다.

⑤ '문기'는 내적 갈등에 시달리다가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안마당에 던짐으로써 내적 갈등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다. 그러나 남은 돈을 내놓으라는 '수만'과의 외적 갈등을 겪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모'의 돈을 훔친다. 이 행동이 후에 '문기'가 또 다른 내적 갈등을 겪는 원인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문기'는 돈을 내놓지 않으면 도적질한 사실을 알려겠다는 '수만'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붙장 안에 있는 '숙모'의 돈을 훔친다.

5 이 작품의 제목은 맑고 푸른 하늘과 달리 양심을 속이고 잘못을 고백하지 못한 주인공 '문기'의 죄책감과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6 작가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여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문기'의 모습을 통해 정직한 삶의 중요성과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7 (다)에서 '문기'는 용기가 없어 '선생님'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한다. '선생님'은 '문기'의 허물을 알지 못하므로 '문기'와 '선생님' 간의 외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점순'의 울음소리에 '문기'가 밤을 뜬눈으로 새운 것으로 보아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쓴 '점순'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하늘은 '문기'의 어둡고 무거운 마음과 대조적으로 맑고 푸르려서 잘못을 한 '문기'는 떳떳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기'의 생각으로 보아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선생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러 갔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문기'의 괴로움과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다.

⑤ (마)에서 '문기'가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자 마음속의 어둠이 차차 사라지며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는 것으로 보아 '문기'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에서 '문기'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점순'이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알고 죄책감과 미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에서 '문기'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삼촌'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털어놓으며 죄책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다.

실전

문제 01 하늘은 맑건만

046~047쪽

1 ④ 2 ⑤ 3 ③ 4 문기는 (붙장 안에 있던) 숙모의 돈을 훔쳤다. 5 ③ 6 ② 7 ③ 8 ⑤

1 이 작품의 배경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로, 당시에 쓰인 화폐나 물건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소재들을 통해 당시의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심리 묘사에 주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주인공인 '문기'가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나)에는 '삼촌'의 훈계에 죄책감을 느끼는 '문기'의 모습이, (다)에는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안마당에 던짐으로써 후련함을 느끼는 '문기'의 모습이 드러난다.

③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의 이면이나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자세히 전달하고 있다.

토요토익

실력 쌓기 02 고무신 ①

048~049쪽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산기슭 마을에 찾아온 봄을 배경으로 식모 살이를 하는 '남이'와 마을에 드나드는 '옛장수'의 애뜻한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작가는 '고무신'과 '벌'을 계기로 맺어지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두 사람은 '남이 아버지'의 등장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옛장수'가 준 것으로 추측되는 옥색 고무신을 신고 마을을 떠나가는 '남이'의 뒷모습을 '옛장수'가 울음 고개에서 지켜보는 마지막 장면은 독자들에게 긴 여운을 남긴다.

• **핵심 보기**

사건 전개	'고무신'의 역할
'남이'가 애지중지하는 옥색 고무신을 아이들이 엮고 바꿔 먹음. → '남이'가 '옛장수'에게 고무신을 돌려 달라고 함.	'남이'와 '옛장수'가 만나는 계기가 됨.(만남의 매개체)
'남이'가 '옛장수'가 선물한 옥색 고무신을 신고 아버지를 따라 떠남.	'남이'와 '옛장수' 간의 사연을 짐작하게 함.



'고무신'의 의미
• '남이'와 '옛장수'의 추억 • '남이'와 '옛장수'의 애정의 징표 • '남이'와 '옛장수'의 이별의 상징

소주제 발단 옛장수

1 ② 2 ⑤ 3 ④ 4 ④ 5 • 공간적 배경: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산기슭 마을 • 계절적 배경: 봄

1 발단의 '보리밭 이랑에~이별이 있었다.'에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봄을 배경으로 한 안타까운 이별 이야기가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사건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③ (나)와 (다)에 제시된 인물의 말이나 대화에 비속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다)의 '철수'의 대사에서 '하지마'와 같은 사투리가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사투리의 사용 때문에 대화를 직접 보는 듯한 현장감이 느껴진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글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⑤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회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는 않다.

2 '귀환 동포'라는 말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났다가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ㄷ), '식모아이'라는 말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소녀들이 다른 집에서 숙식하며 집안일을 맡아 하는 식모살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ㄴ).

• **오답 풀이** ㄱ. (가)에서 마을 사람들이 가난뱅이 월급쟁이 아니면 날 품팔이라고 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의 삶이 팍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옷차림에 신경을 썼는지는 알 수 없다. '남이'가 고무신을 명절이나, 심부름을 갈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아껴 신은 이유는 고무신이 '남이'의 처지에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ㄴ. 이 글의 배경은 광복 직후인 1940년대 후반으로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이다.

3 철수네는 '남이'를 식모아이로 두고 있지만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철수 내외'는 가난뱅이 월급쟁이이다. 또한 (라)에서 '남이'에게 옥색 신을 무리해서 사 주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부유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인 194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도 식모를 두기도 했다.

• **오답 풀이** ① '남이'는 철수네에서 집안일을 하고 철수네 아이들이 '영이'와 '윤이'를 돌보는 식모아이이다.

② (라)에 '남이'가 작년 팔월에 추석치레로 '철수'에게 받은 옥색 고무신을 매우 아끼는 모습이 드러난다.

③ (나)에서 무묘한 마을 아이들의 단 하나의 즐거움이 날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젊은 '옛장수'라는 서술이 나타난다.

⑤ '남이'가, 자신의 아이들이 '영이'와 '윤이'를 때리고 꼬집었음에도 '철수'는 아이들이 잘못하여 '남이'가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보아 '철수'는 '남이'를 온전히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이들이 '남이'가 애지중지하던 옥색 고무신을 엮고 바꾸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남이'가 옥색 고무신을 찾기 위해 '옛장수'와 만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발단'의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과 '산기슭 마을'에서 공간적 배경이, '귀환 동포'라는 말에서 194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올봄'이라는 말에서 계절적 배경이 나타난다.

토요토익

실력 쌓기 02 고무신 ②

050~051쪽

1 ③ 2 ⑤ 3 ④ 4 '남이'와 만나고(마주치고) 싶어서

1 '남이'는 '옛장수'가 벌에 쏘여 양감질을 하는 행동이 우스꽝스럽다고 여겨 웃기만 할 뿐, 벌에 쏘인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옛장수'를 안쓰러워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옛장수'는 '남이'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남이'를 공손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② (마)에서 '남이'는 '영이'와 '윤이'가 '옛장수'에게 가져다 준 자신의 옥색 고무신을 돌려받기 위해 '옛장수'에게 항의하고 있다.

④ (사)에서 '남이'는 벌에 쏘인 '옛장수'를 웃으며 보고 있다가 '옛장수'가 자신을 바라보자 부끄러워 눈을 피한다.

⑤ (바)에서 '옛장수'는 '남이'의 저고리 앞섶에 붙은 벌을 잡으려다 '남이'의 가슴패기에 손이 닿아 민망해하고 있다.

2 ㉠과 ㉡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나 ㉢에는 직유법과 의인법이 함께 사용되었고 ㉣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은 '남이'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시에 빚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옥색 고무신이 없어져 화가 난 '남이'의 심리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은 '남이'가 화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웃는 '옛장수'의 모습을 봄바람을 맞는 수양버들에 빚대어 표현함으로써 '남이'가 따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옛장수'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과 ㉡은 직유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④ ㉔은 아지랑이 때문에 산이 어른어른해 보이는 것을 선잠 깬 여인의 눈시울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수양버들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㉔은 민들레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㉔과 ㉔은 날씨 좋은 봄날의 풍경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3 '남이'는 자신이 아끼던 옥색 고무신을 되찾기 위해 '옛장수'를 만나게 되므로 옥색 고무신은 '남이'와 '옛장수'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이'가 '옛장수'에게 항의를 하는 도중에 난데없이 나타난 벌을 '옛장수'가 잡는 과정에서 두 인물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짝트게 되므로 '벌'은 두 인물이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까워지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4 벌 사건 이후로 '옛장수'는 '남이'에게 연정이 생겼다. 그래서 '남이'를 빨리 보기 위해 일찍 마을에 오고, 또 오랫동안 마을에 머무르며 '남이'를 만날 기회를 얻고 싶어 한다.

독답토락

실력 쓰기 02 고무신 ③

052~053쪽

소주제 전개 고무신 위기 남이

1 ④ 2 ① 3 ④ 4 어느 날 저녁녘에 우연히도 남이 아버지가 찾아왔다.

1 (카)에는 '남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이 아버지'가 '남이'의 결혼 문제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가장이 가족의 문제에 대해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는 가부장적 질서가 확고하고, 봉건적인 결혼 제도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카)에서 '남이 아버지'는 자신의 나이가 칠십이라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딸의 짝을 맞춰 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밤에 개들이 요란하게 짖는 이유는 '옛장수'가 '남이'를 보기 위해 동네로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옛장수'와 '남이'의 사랑에 변화가 생길 것을 암시하는 사건은 '남이 아버지'의 등장이다.

오답 풀이 ① 완전한 봄날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봄 새싹이 돋듯 '옛장수'와 '남이'의 마음에도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남이'를 본 날에는 병글병글 웃고 아이들에게 엽을 나누어 주는 반면, '남이'를 보지 못한 날에는 덤덤히 앉았다가 엽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돌아가는 '옛장수'의 모습으로 보아, '남이'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옛장수'의 기분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옛장수'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남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다.

⑤ 밤에 동네에 나타난 도둑놈은 '옛장수'이다. 도둑놈이 발견되었다는 개울 빨래터나 동네 우물가 등은 '남이'가 자주 가거나 갈 만한 장소이며 '옛장수'는 '남이'를 보기 위해 이러한 장소를 찾아다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옛장수'의 사랑이 깊어지고 봄기운도 무르익을 무렵 '남이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고한다.

독답토락

실력 쓰기 02 고무신 ④

054~055쪽

소주제 절정 옛 절말 올음 고개

1 ② 2 ② 3 ③ 4 ①, ③ 5 정든 마을과 '옛장수', 주인집 가족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다.

1 이 작품은 따뜻한 봄을 배경으로 하여 식모아이인 '남이'와 마을에 찾아오는 '옛장수'의 순수한 사랑과 애절한 이별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2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으나 사건의 이면이나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건을 생략하여 서술하고 사건의 단서만 독자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서술상 특징은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생략된 사건을 상상하게 만든다.

3 '옛장수'는 평소와 다른 '남이'의 모습을 보며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끼지만 꽃놀이를 가는 것일 거라며 상황을 애써 좋게 해석해 보려 한다.

4 결말에서 '남이'가 신고 가는 옥색 고무신은 '옛장수'가 새로 사 준 것이라고 추측되는 소재로, '남이'와 '옛장수'의 추억, 사랑과 이별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② '철수 내외'는 '남이'가 신고 있는, 한 번도 신지 않은 옥색 고무신을 보고 의아해한다. 이를 통해 '남이'가 신고 가는 옥색 고무신이 '남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아이들이 옛과 바꿔 먹었던 것)이 아니라 '옛장수'가 사 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옥색 고무신'은 '남이'와 '옛장수'의 사랑과 이별을 상징하고 있을 뿐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⑤ '옛장수'가 자신을 잊기를 바라는 '남이'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5 '남이'는 짐을 싸 주는 '철수 아내'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설거지를 하겠다거나 물을 길어 오겠다며 시간을 끌고 떠나기 싫은 마음을 내보이고 있다.

실력점

실력 쓰기 문제 02 고무신

056~057쪽

1 ② 2 ⑤ 3 ⑤ 4 벌 5 ③ 6 ③ 7 ③ 8 ①

1 '영이'와 '윤이'가 '남이'의 고무신을 옛과 바꿔 먹은 일은 '남이'가 '옛장수'와 만나고 연정이 싹트는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공간적 배경인 산기슭 마을과 그곳에 사는 '철수 내외'가 소개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남이'가 옥색 고무신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는 고무신을 내놓으라며 양살을 부리는 '남이'와 이러한 '남이'에게 신이 도가에 없으면 사서라도 주겠다며 달래는 '옛장수'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다. '옛장수'는 처음부터 '남이'의 신발인 줄 알았으면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말끝을 흐리고 있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거나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마)에서는 벌을 잡다가 쏘이는 '옛장수'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웃어버리는 '남이'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2 (마)에서 '남이'는 '옛장수'가 벌에 쏘이자 우스워서 킁킁하고 웃다가 '옛장수'와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피한다. '옛장수'는 벌에 쏘여 아프지만 웃는 '남이'가 예쁘다고 생각하며 설렘을 느끼고 있다.

3 '옛장수'가 울상인 것은 손바닥을 벌에 쏘여 아팠기 때문이고 웃는 상인 것은 자신을 보고 웃는 '남이'를 보고 웃음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가난한 월급쟁이거나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을 누더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 '철수'는 '영이'와 '윤이'가 '남이'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남이'가 아이들을 때리고 꼬집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③ 신을 한번 신으면 비누로 씻는 '남이'의 모습에서 신을 애지중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고무신이 '남이'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며 고분고분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옛장수'의 순박함을 알 수 있다.

4 '남이'에게 붙은 '벌'을 '옛장수'가 떼어 주는 사건을 겪으며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지고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5 (나)에서 '남이 아버지'는 '남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랑을 정해 놓고 '남이'를 시집보내려 한다. 이러한 내용에서 당시 봉건적,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나기보다는 '남이'와 '옛장수'의 애뜻한 사랑과 이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의 배경은 산기슭 마을이며 (나)에서와 같이 사투리가 사용되어 향토적인 분위기가 드러난다.

② 이 소설은 '남이'와 '옛장수'의 만남과 이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④ '남이'가 '옛장수'에게 옥색 고무신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설에는 생략되어 있다. 독자들은 '남이'가 마을을 떠날 때 새 옥색 고무신을 신고 간다는 내용을 통해 '남이'와 '옛장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⑤ 이 글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사건의 진상에 대해 모두 알고 있으며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전달하고 있다.

6 '철수 내외'는 '남이'가 아직 어려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③과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7 철수네 집을 떠나는 날 아침에 '옛장수'와 마주치자 '남이'의 눈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간 것으로 보아 '남이'가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옛장수'와의 이별에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은 '옛장수'가 '남이'에게 사 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고무신으로 '남이'와 '옛장수'의 애정의 징표이자 이별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은 '옛장수'와 '남이'의 이별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독답토익
실력

썩기 03 자전거 도둑 ①

058~059쪽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수남'이라는 소년이 겪는 다양한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소년의 시선을 통해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외적 갈등	'수남'과 '××상회 주인'	물건값을 받으려는 '수남'과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
	'수남'과 '신사'	'수남'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자신의 차에 흠집을 내자 수리비를 요구하는 '신사'와 돈을 주지 않으려는 '수남'
'수남'의 내적 갈등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쾌감을 느낀 것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는 '수남'



갈등 해결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함.
-------	---

소주제 발단 주인공 영감

1 ⑤ 2 ④ 3 ⑤ 4 ③ 5 육친애

1 (나)에서 '수남'은 점원 셋이 감당할 일을 홀로 하느라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수남'은 혹사당하여 억울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주인 영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수남'은 자신에게 점원 셋이 할 정도의 일을 맡겨 이익을 얻는 '주인 영감'의 이기적이고 인색한 면모를 모르고 있다.

② (나)에서 점원이 적어도 세 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수남' 혼자서 해내고 있기 때문에 벅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남'의 건강이 나빠지는 내용은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운영하다'는 '사업체 따위를 운영하고 경영하다.'라는 의미이다. '수남'은 전기용품 도매상의 점원일 뿐이므로 전기용품점을 운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수남'의 어린아이 같은 외양과 숙성한 목소리에 대해 묘사하였다. '수남'의 외모는 아이 같지만 목소리는 전화를 타면 점장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고 하였다.

2 (나)에서 '수남'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면서도 점원을 더 쓰지 않으려 하는 모습으로 보아 '주인 영감'이 인색하고 이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에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주인 영감'이 오기 전에 가게 정리와 몸단장까지 마치는 모습으로 보아 '수남'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3 (가)~(라)는 이 소설의 '발단' 부분으로, 등장인물인 '수남'과 '주인 영감'의 성격과 처지를 제시하고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은 '전개', ②는 '위기', ③과 ④는 '절정'에 대한 설명이다.

4 '주인 영감'은 '수남'의 순진함을 지켜 준다는 이유로 점원을 더 쓰지 않고 점원 셋이 할 일을 '수남'에게 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인건비를 절약하여 금전적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다.

- 5 '수남'은 집을 떠나 가게에서 일하며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린 소년이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자신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주인 영감'의 칭찬과 따뜻한 손길에서 육친애를 느끼고 있다.

독답토닥

실력

쌓기 03 자전거 도둑 2

060~061쪽

소주제 전개 물건값

1 ② 2 ④ 3 ④ 4 ④ 5 ⑤

- 1 (사)에서 '××상회 주인'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물건값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수남'은 어떻게든 물건값을 받으려 버티고 있다.
- 2 (자)에서 차의 생채기를 찾아내고는 환성을 지르는 행동과 팔 짹팔짹 뛰면서 '수남'에게 흠집을 확인시키는 행동에서 '신사'가 자신의 손해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망스럽고 인정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3 (자)에서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밀려 쓰러지면서 '신사'의 차에 생채기를 내게 된다. 이와 같은 사건 전개를 보았을 때, 세차게 부는 바람은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앞으로 '수남'에게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향토적'이라는 말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이다. '바람'은 도시의 흥흥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이 글은 197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바람 부는 날씨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③ '수남'은 을씨년스러운 도시의 바람 부는 날씨를 보며, 시골의 아름다운 바람 부는 풍경을 떠올리고 고독감을 느낀다.

⑤ (자)에서 '바람'에 쓰러진 자전거가 '신사'의 자동차에 흠집을 내는 사건이 발생하므로 '바람'은 인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 4 '주인 영감'이 ㉠과 같이 말한 이유는 '수남'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자신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날까 봐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누구 못할 노릇'이란 '주인 영감'에게 해가 되는 일을 의미한다. '주인 영감'은 '수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② (바)에서 '수남'이 형광 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 것으로 보아 '수남'이 꼼꼼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③ (바)에서 '수남'이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하였다.

⑤ ㉠에는 배달이 늦어질까 봐 걱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수남'이 사고를 내어 자신이 손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5 ㉠에는 '××상회 주인'에게 물건값을 받기 위해 정확한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는 '수남'의 모습이 드러나고, ㉡에는 '××상회 주인'의 비위를 맞춰 돈을 받아 내려는 '수남'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처럼 ㉠과 ㉡에는 도시 생활에 물들어 저도 모르게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수남'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독답토닥

실력

쌓기 03 자전거 도둑 3

062~063쪽

소주제 위기 자전거

1 ④ 2 ② 3 ⑤ 4 ④ 5 도둑놈 풀(이다)

- 1 '신사'는 '수남'의 자전거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수남'이 차 수리비 오천 원을 물어내지 못할 것 같자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고 오천 원을 가져올 때까지 잡아 두려 한 것이다.

- 2 (차)에서 '신사'는 차 수리비를 받아 내기 위해 '수남'의 자전거를 잡아 두려고 한다. '수남'은 돈을 지킬 생각만 했지 자전거를 빼앗길 줄 몰랐기에 막막하고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과 같이 서 있었다.

오답 풀이 ① (차)의 '신사'의 말에서 '신사'가 차 수리비로 오천 원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남'은 ××상회에서 물건값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있어 그 돈을 수리비로 빼앗길까 봐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

③ "토끼라 토끼. 그까짓 것 갖고 토끼라."라는 구경꾼들의 말이 '수남'에게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으며, 그 말을 듣고는 그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가슴이 뻥 뚫렸다.

④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것이 구경꾼들의 부추김 때문이라 자전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⑤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자전거가 조금도 무겁지 않게 느껴지고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난 이유는 해방감과 쾌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 3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한다. ㉠은 시골에서 온 '수남'이 도시 생활에 어울리게 약삭빠르게 행동하여 자신이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게 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다. '수남'은 이런 '주인 영감'에게 실망하여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② 자전거에서 자물쇠를 분해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이 '도둑놈 두목'처럼 보이고 얼굴이 '누런 동빛'인 것을 깨달아 속이 메스껍다는 '수남'의 생각에서 '주인 영감'을 좋아하였던 '수남'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수남'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수남'의 잘못된 행동을 단지 자신에게 손해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칭찬을 하는 '주인 영감'은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4 '수남'은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에서 '주인 영감'이 도덕적 양심보다 금전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을 깨닫고는 '주인 영감'에게 실망하고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였던 '주인 영감'의 손길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 5 (타)에서 '도둑놈 풀'이라는 말이 '수남'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말이 '수남'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남'은 "네놈 풀이 영락없이 도둑놈 풀이다"라는 '주인 영감'의 말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를 생각하며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토익토익

실력 쌓기 03 자전거 도둑 ④

064~065쪽

소주제 **절정** 거부감(혐오감) **결말** 아버지

1 ① 2 ② 3 ④ 4 ① 5 '수남'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1 (하)에서 '수남'의 형은 돈을 벌려고 집을 나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였고, '수남' 역시 형처럼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났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수남'이 아니라 형이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읍내에서 도둑질을 하여 잡힌 적이 있다고 하였다.

③ (하)에서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가겠다는 '수남'을 말리지 않고 다만 도둑질만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④ '아버지'가 화병이 난 것은 '수남의 형'이 도둑질을 하여 잡혀 들어간 일 때문으로, '수남'이 고향이 떠나오기 전의 일이다. '수남'이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은 도덕성과 양심을 되찾기 위함이며 병든 '아버지'의 간호와는 관계가 없다.

⑤ (따)에서 '수남'은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라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질게 느꼈다는 것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2 '수남'은 자신이 도둑질을 하며 쾌감을 느꼈던 것과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던 '아버지'의 당부를 어긴 것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3 (거)에서 '수남'은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주인 영감'을 떠나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도덕성(양심)을 회복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도덕성(양심)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덕적 양심보다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4 ㉠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부도덕한 '수남'의 모습을, ㉡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본래의 순수함과 도덕성을 회복한 모습을 의미한다.

5 내적 갈등 끝에 '수남'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고향에는 자신에게 도덕적인 경계심을 심어 주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실력

실전 문제 03 자전거 도둑

066~067쪽

1 ⑤ 2 ⑤ 3 ⑤ 4 쾌감 5 ④ 6 ② 7 ④
8 ④ 9 (자신에게) 손해가 안 났기 때문에

1 이 글은 작가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꾸며 쓴 소설이다.

오답 풀이 ①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주인공인 '수남'이 주변 인물과 겪는 외적 갈등과 '수남'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 심리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사건의 양상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남'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④ 소년 '수남'이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겪는 사건들을 통해서 도시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2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은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절정'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수남'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따)가 절정에 해당한다.

3 (따)에서 '수남'이 갈등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느꼈기 때문이다. '수남'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괴로워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인 영감'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점원으로 들어오면 순진한 '수남'이 물들 수 있다는 핑계를 들어 점원을 더 쓰지 않고 있다.

② '수남'은 은행 막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물건값을 받기 위해 장사꾼 같은 수를 쓰고 있다.

③ '신사'는 어린 소년인 '수남'에게 차 수리비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야박하고 이기적인 인물이다.

④ '수남'은 '신사'가 차 수리비를 받아 내기 위해 자신의 자전거를 잡아두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다.

4 (따)에서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죄책감보다 쾌감을 느낀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도덕성을 깨닫고 고민하고 있다.

5 <보기>의 내용은 '내적 갈등'에 대한 것이다. (라)에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고민하며 내적 갈등을 겪는 '수남'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6 (다)에서 '수남'은 '도둑놈 꼴'이라는 '주인 영감'의 말을 듣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라)에서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을 돌아보며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다. (따)에서 '수남'은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여 후련함을 느낀다.

7 다친 아가씨보다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전선 도매집 주인을 동정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수남'에게 '아버지'는 '주인 영감'과 대조되는 존재로, '수남'을 도덕적으로 이끌어 줄 어른이다.

오답 풀이 ① '바람' 때문에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의미로, '바람'에 대한 도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② 정당하게 주어야 할 물건값인데도 주기 싫어하는 '××상회 주인'의 인색함과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③ '수남'은 낮의 일을 돌이켜 보면서 도덕성과 부도덕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감싸는 마음은 '수남'의 부도덕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누런 동빛'은 부도덕성을 의미하고, '소년다운 청순함'은 양심의 회복을 의미하므로 ㉠은 '수남'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9 '수남'이 '신사'에게 차 수리비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들고 도망쳐서 '주인 영감'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랬기에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다.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어른이 된 '나'가 학창 시절 '수택'과 짝이 되면서 겪은 일을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서술한 작품이다.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수택'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는 '나'의 모습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 **핵심 보기**

과거의 사건	지저분한 외모와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꺼리는 '수택'과 '나'가 짝이 됨. → '나'와 '수택'은 깍두기와 신문을 나누며 서로 친밀해짐. → '수택'과 '나'가 사귀다고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난 '나'는 '수택'이 준 신문을 태워 버림.
↓	
'나'의 깨달음	•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신문을 태워 버렸지만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며 '수택'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음. • '수택'이 그날의 상처를 잊고 잘 살아가기를 바램.

1 ③ 2 ② 3 ① 4 ② 5 ③

- 1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 옆에 앉으라고 하였으므로 '수택'이 '나'에게 호감이 있어 '나'의 옆에 앉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수택'의 눈이 나쁜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 '나'가 반에서 제일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쓴 아이라고 제시되었으므로 눈이 나쁜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키가 작아서 첫 줄에 앉아 있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저번에는 여자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아이 옆에 앉는 방식으로 짝을 바꾸었고 이번에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옆에 가서 앉는 방식으로 짝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으로 보아 선생님이 짝을 바꿀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에 삼월부터 매달 짝을 바꾸었다는 설명이 드러난다.

④ '수택'이 '나'의 옆에 앉자 여자아이들이 안심을 하며 귀엣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다)에 드러난다.

⑤ 남자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 옆에 가서 앉는 방식으로 짝을 바꾸기로 했는데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교실 앞에서 쭈뼛거리는 남자아이들의 모습이 (가)에 드러난다.

- 2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이다. 서술자는 자신이 겪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다)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작품의 주인공 서술자가 구체적으로 인물의 생각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다)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 제시되었을 뿐, 현재 '나'가 겪은 사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어른이 된 서술자가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사건 전개에 참신성을 부여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3 (가)~(다)는 이 소설의 '발단' 부분이다. '발단'에서는 중심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앞으로 벌어질 사건과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가)~(다)에는 중심인물인 '나'와 '수택'이 소개되고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배경이 드러나며, 갈등의 실마리인 '나'와 '수택'이 새롭게 짝이 된 사건이 발생한다.

- 4 석간신문을 배달한다는 것은 '수택'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생임에도 신문 배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 그 때문에 반 아이들이 '수택'을 싫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5 '나'는 처음에는 옆에 누가 앉을지 궁금해하고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수택'이 옆에 앉자 숨이 막혀 버릴 정도로 당황하였다. 그리고 반 아이들이 '수택'과 짝이 된 '나'를 놀리는 것 같아서 창피함을 느꼈다.

소주제 발단 수택

1 ④ 2 ⑤ 3 ② 4 ③ 5 보리밥, 양은 도시락, 허연 깍두기

- 1 '나'는 '수택'과 짝을 하기 싫었지만 대놓고 싫다는 내색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나'가 소극적인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짝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반 아이들이 자신이 착하지 않다고 수군뭇가 봐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2 '나'는 짝을 바꿔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착한 어린이 상'을 탄 이후로 착한 어린이답게 행동하고 싶었고, '착한 어린이 상'을 탄 자신이 '수택'과 짝을 안 하겠다고 하면 반 아이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볼까 봐 걱정이 되었기에 짝을 바꿔 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나'는 일 학기에 '착한 어린이 상'을 탔다고 하였으나 앞으로 '나'가 그 상을 타고 싶어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②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지저분한 '수택'을 꺼리고 있으며, (라)에서 '수택'이 번번이 혼자 앉겠다고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안쓰러워하거나 마음 아픈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다.

③ (라)에서 '수택'과 짝이 된 아이들이 짝을 바꿔 달라고 하면 선생님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가 '수택'과 짝을 하는 것을 견뎌 보겠다고 결심한 것은 반 아이들에게 '착한 어린이 상'을 받은 아이답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④ (라)에서 '수택'은 짝이 된 아이들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스스로 뒷자리에 혼자 앉겠다고 선생님께 말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수택'과 짝이 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수택'이 먼저 선생님께 혼자 앉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다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을 때 '수택'은 늘 혼자서 점심을 먹었으므로 그러한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 4 '선생님'은 '수택'과 짝이 된 아이들이 짝을 바꿔 달라고 하면 '수택'을 생각해서 이를 들어 주지 않았다. '수택'은 짝이 된 반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겠다고 '선생님'께 말하곤 하였다. '선생님'은 '수택'이 혼자 앉으려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말리지 못하고 이를 허락한 것이지 '수택'을 아껴서 맨 뒤에 혼자 앉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수택'은 짝이 된 아이가 자신과 짝이 된 것을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혼자자 앉기 편하다는 핑계를 들어서 '선생님'께 혼자 앉겠다고 하였다.

② '선생님'은 '수택'이 자신과 앉기 싫어하는 짝을 위해 혼자 앉겠다고 한 것을 알지만, '수택'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④ ㉔처럼 '조수택'이라는 이름을 몰라 반문하는 것으로 보아 '수택'이 이름보다는 '보리 방구'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수택'은 보온 도시락이 아닌 양은 도시락에 담긴 쌀보다 보리가 더 많이 들어간 보리밥과 허연 깍두기를 먹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㉔와 같이 어깨를 움츠리고 원팔로 도시락과 깍두기 통을 가리면서 먹었던 것이다.

- 5 쌀보다 보리가 더 많은 보리밥, 보온 도시락이 없어 들고 온 양은 도시락, 양념을 제대로 하지 않은 허연 깍두기는 모두 '수택'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토익토크

실력

쌍기 04 보리 방구 조수택 ③

072~073쪽

소주제 전개 깍두기

- 1 ① 2 ② 3 ② 4 ⑤ 5 '수택'이 혼자서 밥을 먹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 1 (차)는 구성 단계상 갈등이 고조되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위기'에 해당한다. '수택'이 '나'에게 신문을 주는 것을 본 아이들이 '나'와 '수택'을 놀리고 이 때문에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오답 풀이 ② '수택'이 자신의 가난한 형편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내용이 (차)에 드러나 있지는 않다. 또한, '수택'은 이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다.

③ 아이들이 '나'와 '수택'이 사귀다며 놀리고는 있지만, '수택'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차)에는 아이들의 놀림에 화가 난 '나'의 반응만이 제시되어 있다.

④ '나'가 '수택'이 주는 신문을 받아서 소문이 난 것이므로 '나'가 신문을 거절하려고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수택'과 '나'가 '깍두기'와 '신문'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가 '수택'이 자신에게 신문을 준다는 사실을 다른 아이들이 알게 될까 봐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가 '수택'을 괴롭히는 아이들과 대립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 (아)에서 '나'의 깍두기를 받은 '수택'이 받아본 적 없는 배려에 처음에는 깜짝 놀라 멍하니 있다가 깍두기를 조금씩 아껴 먹는 모습에서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에서 깍두기를 나눠 먹은 후 이에 대한 보답으로 어린이 신문을 '나'에게 주는 것에서도 '나'에 대한 고마움이 드러난다.

- 3 '나'는 신문을 건네주는 '수택'의 동상 걸린 손을 보고 안쓰러움을 느껴 '수택'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 4 '나'가 '수택'에게 '깍두기'를 나눠 주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수택'은 고마움의 표시로 '어린이 신문'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본 누군가가 둘이 사귀다는 소문을 내고 '나'는 이 소문 때문에 괴로워했다.

- 5 제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모두가 짝과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던 '수택'도 짝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

토익토크

실력

쌍기 04 보리 방구 조수택 ④

074~075쪽

소주제 위기 소문 절정 신문 결말 수택

- 1 ③ 2 ② 3 ③ 4 '수택'과 '나'가 사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보여 주려) 한다.

- 1 이 글의 '나'는 어린 시절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준 일을 후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 글을 읽은 후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성찰해 볼 수 있다. ③에서 친구의 잘못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리는 태도와 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 2 (하)에서 '나'는 '수택'이 준 신문을 태워 버린 사건 이후로 신문을 보며 오랫동안 '수택'을 떠올린다. '나'는 '수택'의 호의를 거절하고 무시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수택'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하)에서 '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수택'을 떠올리며, '수택'에게 그날의 상처가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③, ④, ⑤ (하)에서 '나'는 신문을 보면 그날 태워 버린 신문이 자주 떠오르고 신문 재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가 그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수택'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㉔에서 아이들은 '수택'이 옆에 있는데도 '수택'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문을 꺼내 보았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수택'에게 깍두기를 나누어 주고 '수택'이 '나'에게 신문을 주는 것을 본 아이들이 '수택'과 '나'가 사귀는 소문을 낸 것이므로 '나'는 '수택'과의 연결 고리를 없애기 위해 ㉔과 같이 행동하였다.

② '수택'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자신과 짝을 해 주고 깍두기를 나누어 준 '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가 쌀쌀맞게 굴어도 자신이 줄 수 있는 신문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러나 '나'는 '수택'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신문을 계속 주자 화가 나 '수택'에게 으름장을 놓게 된다.

④ 어깨를 떨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놀림과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 때문에 '수택'이 괴로움과 노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난로 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것만 보아도 그날 일이 생각났다는 것이므로 '나'가 '수택'과의 일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나'는 '수택'과 사귀다며 놀리는 아이들과 신문을 주지 말라는 자신의 말에도 계속 '나'의 책상 서랍 속에 신문을 넣는 '수택'에게 몹시 화가 난다. 그래서 '수택'이 준 신문을 태워 '수택'의 마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반 아이들에게 '수택'과 자신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전

문제

04 보리 방구 조수택

076~077쪽

- 1 ③ 2 ① 3 ⑤ 4 ④ 5 ② 6 ⑤ 7 ⑤
8 ④ 9 각두기를 나눠 먹지 않고, 신문을 '수택'의 서랍에 도로 넣었다.

- 1 '착한 어린이 상'을 받은 사람은 '수택'이 아니라 '나'이다. (나)에 일 학기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의 투표로 '나'가 착한 어린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2 '나'는 '수택'과 처음 짝이 되었을 때 너무 싫었지만 '착한 어린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짝을 바꿔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시간에 각두기를 나누어 먹는 등 점차 '수택'과 가까워진다.

오답 풀이 ② '나'가 '수택'의 더러운 모습에 놀라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나'는 '수택'을 피하지 않고 짝이 되었다.

③ '나'는 처음에 '수택'과 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택'을 싫어하였다. 그러나 짝이 된 이후 각두기와 신문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수택'과 가까워진다.

④ '수택'에게 신문을 받기 전, '나'는 '수택'의 모습이 안쓰러워 각두기를 나누어 주었으므로 '수택'에게 무관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나'가 각두기를 나누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수택'이 '나'에게 신문을 준 것이므로 '수택'이 '나'를 고마운 존재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

⑤ '나'가 '수택'을 놀리는 모습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으며, '나'는 '수택'의 트 손을 보고 안쓰러움을 느낀다.

- 3 ㉠은 양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반찬으로 '수택'의 가난한 집안 형편을 드러낸다. ㉡은 주눅이 든 채 밥을 먹는 '수택'에게 '나'가 준 반찬으로 '수택'에 대한 '나'의 배려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수택'은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가)~(마)는 '나'와 '수택'이 갈등을 겪기 전이므로 ㉠과 ㉡은 갈등 양상과 관련이 없다.

② ㉠은 '수택'이 싸 온 것이지만 '수택'이 직접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③ ㉠은 '수택'의 가난한 가정 형편이 드러나는 소재이다. ㉡은 '나'의 반찬으로, '나'의 가정 형편이 '수택'보다 낫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 때문에 '나'가 아이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수택'에게서는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 씻지 못하고 옷을 세탁하지 않은 탓이지 ㉠ 때문이 아니다. ㉡은 '나'가 '수택'에게 건넨 반찬으로 '나'와 '수택'을 가깝게 만드는 소재이다.

- 4 '수택'은 늘 혼자였기 때문에 '나'가 반찬을 나누어 주자 놀라고 당황하여 ㉠과 같이 반응한 것이다. 따라서 '수택'이 거부감을 느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수택'이 지저분한 데다가 냄새가 지독한 방귀를 뀌므로 아이들은 '수택'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한다.

② '나'는 '수택'이 자신을 짝으로 정하자 숨이 멎을 듯이 놀랐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수택'을 싫어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착한 어린이 상'을 받은 후 그 상에 걸맞게 행동하고 싶어서 짝을 바꿔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⑤ (라)에서 '나'가 준 각두기를 먹은 '수택'은 이러한 '나'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 5 이 글은 작품 속 인물인 '나(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②는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나'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수택'과 있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하여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며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자신의 심리와 행동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의 주요 사건인 '나'와 '수택'이 겪은 일은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다.

⑤ (라)와 (마)에서 '나'는 과거에 '수택'이 준 신문을 난로에 던져 버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성찰하고 있다.

- 6 이 글의 '나'는 '수택'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정신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와 같이 감상한 독자는 '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7 '수택'이 겨울 방학 때 시골 친척 집으로 이사를 간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행동에 상처를 입어서 이사를 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8 '나'는 '수택'과 사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난로에 신문을 던져 버린다. 아이들이 '나'를 놀렸기 때문에 '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며, '나'와 아이들의 따뜻한 우정과 관련이 없다. 또한, '난로'는 '나'가 신문을 태운 도구이며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이들 사이에 퍼진 '수택'과 '나'가 사귀다는 소문 때문에 '나'는 몹시 괴로워하고 (나)에 제시된 것처럼 '수택'을 멀리하려 하였다.

② 겨울 방학은 '나'가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기간으로, '수택'과 아이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다. '수택'과의 소문으로 힘들어하는 '나'는 빨리 겨울 방학이 되어 '수택'과 더 이상 짝을 하지 않고, 소문이 가라앉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③ (다)에서 '수택'이 입은 '어깨술기가 터진 스웨터', '누렇게 바랜 내복'은 '수택'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여 준다.

⑤ '나'에게 '신문지'는 '수택'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린 시절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 9 '수택'에게 각두기를 주고, 신문을 받은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져 '나'와 '수택'이 사귀다는 소문이 났으므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독단토익

실력 쓰기 05 홍길동전 ①

078~079쪽

• **작품 설명:** 이 소설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서자인 '길동'이 적서 차별 제도 인하여 겪는 갈등과 갈등의 해결 과정을 그리고 있다.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길동'이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모습을 통해 신분제에 따라 차별하던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핵심 보기**

갈등 원인	갈등 양상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	'길동'의 내적 갈등 • 호부호형하고 싶음. •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입신양명하고 싶음.
	'길동'과 '홍 판서'의 갈등 '길동'은 '홍 판서'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만 '홍 판서'는 '길동'이 현실에 순응하기를 바람.
	'길동'과 조정의 갈등 '길동'이 관리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물을 빼앗자 조정은 '길동'을 잡아들이고자 함.

갈등 해결 '길동'이 벼슬을 받고 조선을 떠남.

1 ② 2 ④ 3 ⑤ 4 ⑤ 5 소인, 대감

1 (나)의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명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라는 대목에서 공명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문관으로 벼슬을 한다는 의미이고, 병법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차겠다는 것은 무관으로 벼슬을 한다는 의미이다. 문관이 되지 못한다면 무관이라도 되겠다는 '길동'의 말에서 당시에는 무관보다 문관이 우대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나)의 '길동'의 말에서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알리는 입신양명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공'의 말에서 '길동'이 천한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며, '길동'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에서는 본처 이외에 첩을 둘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길동'이 종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다고 하였고, '길동' 자신도 양반인 아버지와 신분이 다른 것으로 보아 출생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신분 제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길동'이 갈등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적서 차별 제도 때문이다. '길동'은 이러한 사회 제도에 가정 안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입신양명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길동'이 검술을 익히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② (가)에서 '길동'이 비범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길동'은 타고난 재능은 출중하지만 서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출세할 수 없는 신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사회 제도와 갈등을 겪는 인물이다.

③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 없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길동'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서자이기 때문이다.

⑤ '길동'은 길러 주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3 '공(홍 판서)'은 '길동'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의 적서 차별 제도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동'을 꾸짖고 있다.

4 (다)에는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을 '공(홍 판서)'에게 하소연하는 '길동'과 이러한 '길동'을 꾸짖는 '공'의 갈등이 드러난다. 그러나 ㉠은 '공'과 '길동'의 외적 갈등 이후 신분의 한계 때문에 고민하는 '길동'의 내적 갈등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길동'이 매우 총명한 인재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비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② 처량한 달빛과 맑은 바람은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길동'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물이다.

③ 고전 소설에서는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에서도 검술을 익히는 '길동'을 우연히 '공(홍 판서)'이 보았다고 하였다.

④ ㉢을 통해 당시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5 '소인'은 '길동'과 '공(홍 판서)'의 신분적 차이를 드러낸 말로, '길동'은 서자이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 앞이지만 자신을 '소자'라고 칭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유로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불러야 한다.

보충 자료

| '소인'과 '소자'의 의미 |

- 소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소자: 아들이 부모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독단토익

실력 쓰기 05 홍길동전 ②

080~081쪽

소주제 발단 서자

1 ④ 2 ① 3 ② 4 ④ 5 ③

1 '길동'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를 비판하며 이에 반발하여 집을 떠나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자 한다. '길동의 어머니'는 '재상가의 천생이 너뿐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신분제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며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라)에서 '길동'은 어머니에게 출가의 뜻을 밝히는데, 주된 이유는 서자로서의 한을 풀고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함이다. ①과 같은 걱정을 하는 인물은 곡산댁이다.

오답 풀이 ②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나 서자로 살면서 품은 한이 깊음을 토로하고 있다.

③ 근간에 곡산댁이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길동'과 '길동의 어머니'를 원수같이 알고 있어 이에 큰 화를 입을까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④ 서자로 태어나 남의 천대를 받음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서 차별 제도라는 사회 제도에 저항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 것을 알 수 있다.

⑤ 길산도 천생이지만 후세에 이름을 널리 알린 것처럼 '길동' 역시 서자인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집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 3 (마)에서 '길동'은 기절한 '홍 판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환약으로 정신을 들게 하는데 여기에 효 사상이 드러난다. 그리고 (바)의 '길동'이 '임금' 앞에서 자신을 '신(臣)'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한을 호소하는 데에서 임금에 대한 충 사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의 '모친과 더불어 전생연분이 중하여 금세에 모자가 되었으니'라는 '길동'의 말에서 불교적 윤회 사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마), (바)에는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③ (바)에서 스스로 집을 나와 도적의 무리에 참여했다는 것에서 '길동'이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바탕으로 개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바)에서 '길동'이 집을 나와 도적의 무리에 참여했다고 했으나 이것은 입신양명의 꿈을 이룰 수 없기에 한 일이지 재물을 중시하여 한 일 아니다.

⑤ (바)에서 '길동'은 자신의 아버지가 나라(임금)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자신이 한 도적질이 실상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하였다.

- 4 여덟 명의 '길동'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여덟 명의 '길동' 모두 풀로 만든 허수아비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된다는 고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다. 또한 궐내 누구도 치료하지 못한 '홍 판서'를 여덟 명의 '길동'이 환약을 먹여 일으키고, 풀로 여덟 명의 '길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길동'이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5 ㉠, ㉢, ㉤, ㉥은 모두 '길동'을 가리키는 말이고, ㉡는 앞에 나온 장충의 아들 길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충 자료

「홍길동전」과 장길산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시기는 조선 광해군 때이지만 장길산이 도둑 집단의 우두머리로 활동했던 때는 조선 숙종 때로, 「홍길동전」이 완성되고 한참 후의 일이다. 그럼에도 「홍길동전」에 장길산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후대에 이 소설을 필사하던 사람이 의도를 담고 덧붙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장길산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서열, 승려 출신 세력 등과 함께 봉기하여 큰 뜻을 펼치고자 하였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도전도전

실력

썩기 05 홍길동전 3

082~083쪽

소주제 위기 조선

- 1 ① 2 ③ 3 ⑤ 4 사회 제도(적서 차별 제도) 때문에 이루지 못한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 1 조정(임금과 신하들)에서는 '길동'을 잡으려 하고 있고, '길동'은 병조 판서 벼슬을 내린다면 잡히겠다고 하여 갈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사)에서 '임금'이 병조 판서를 제수하면 잡히겠다는 '길동'의 글을 보고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고민한 것은 아니다.

③ (아)에서 '길동'의 형인 '경상 감사'는 스스로 잡히겠다고 나타난 '길동'을 보고 애달파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망설이지 않고 '임금'의 명대로 '길동'을 잡아 서울로 데려간다.

④ (사)에서 '임금'은 '길동'에게 벼슬을 주는 일이 알려지면 이웃 나라에도 참치스럽다는 신하들의 말에 수궁하여 '길동'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⑤ 천한 신분인 '길동'이 병조 판서 벼슬을 원하는 것에서 '길동'이 신분 제도에 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사회 제도를 유지하려는 측은 조정 측이며, 사회 제도에 저항하는 측은 '길동'이다.

- 2 '길동'은 서자로 태어나 차별을 받으며 살아 왔다. 이렇듯 신분 제도에서 비롯된 차별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부조리한 사회 제도를 원망하던 '길동'은 입신양명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임금'에게 병조 판서 벼슬을 요구하였다. 결국 병조 판서 벼슬을 받은 '길동'은 평생에 맺혔던 한을 풀고 조선을 떠났다.

- 3 [A]에서 '길동'은 병조 판서 벼슬을 받자 조선을 떠난다. 입신양명(立身揚名)하고자 했던 '길동' 자신의 꿈은 이루었으나 적서 차별 제도라는 신분 제도에 의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4 '길동'은 뛰어난 능력이 있으나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신의 한을 풀고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병조 판서 벼슬을 원한 것이다.

실전

문제 05 홍길동전

084~085쪽

- 1 ④ 2 ⑤ 3 ⑤ 4 ㉠: 소자, ㉢: 아버지 5 ④
6 ② 7 ④ 8 ③

- 1 이 글은 고전 소설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제시된 부분에는 이러한 사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글의 비현실적 사건은 '길동'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되므로 이를 익살스럽거나 우습게 표현하지 않는다.

- 2 (다)에서 '길동'이 출가의 뜻을 내비치자 '길동의 어미'가 슬퍼하는 모습으로 보아 '길동'의 출가를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공(홍 판서)'은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길동'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② (다)에서 '길동의 어미'는 "재상가의 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 간장을 태우느냐?"라고 하며 사회 제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나)에서 '공(홍 판서)'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서려워하는 '길동'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신분 제도라는 부당한 사회 제도에 순응하기 때문에 '길동'을 꾸짖는다.

④ '길동'은 서자로 태어나 차별을 겪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적서 차별 제도라는 사회 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다.

- 3 ㉢은 길산이 집을 떠나 이름을 후세에 널리 알렸듯이 '길동' 자신도 집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스스로의 능력을 펼치겠다는 의미이다.

○답 풀이 ① (가)에서 '길동'은 자신이 바라는 바와 자신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은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길동'의 내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당시에는 장부로 태어나 나라에 공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중시하였고, 이는 ㉡의 '길동'에 말에 잘 드러난다.

③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서자들은 양반인 아버지나 형에게 호부호형할 수 없었다.

④ '길동의 어머니'의 말을 통해 당대 재상가에서는 첩에게서 난 서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4 (나)에서 '길동'은 서자이기에 아버지인 '홍 판서' 앞에서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고,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부르고 있다. 제시된 글에서 '길동'은 '홍 판서'로부터 호부호형을 허락받으면서 자신을 칭할 때에도 부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말인 '소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대감' 대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5 (가)의 '길동'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던 이유는 각 읍의 수령들이 백성들을 들볶아 착취하여 재물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길동'이 이끈 도적의 무리들은 관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을 빼앗았지 백성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다.

○답 풀이 ①, ② '길동'은 조정과 갈등하지만, (가)에서 '임금'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다)에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교적 충(忠) 사상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임금'이 '길동'을 잡으라는 공문을 팔도에 내렸다는 것에서 나라가 여덟 개의 도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길동'의 말에서 당대 백성들이 탐관오리로부터 착취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조선 시대는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사회였다.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호부호형도 못하고 입신양명의 길에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집을 떠나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어 조정과 갈등을 일으킨다.

7 (다)에서 병조 판서를 제수받은 '길동'은 입신양명하고 싶은 자신의 한을 풀었다며 인사를 전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8 ㉢의 병조 판서 벼슬을 주면 잡히겠다는 말과 (다)의 병조 판서를 제수받고는 '임금'에게 평생의 한을 풀었다고 한 '길동'의 말에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길동'이 이루고자 한 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답 풀이 ① ㉠에서는 '길동의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은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길동'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병조 판서 벼슬을 제수받은 '길동'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관복을 갖춰 입고 궐내로 들어오는 모습이므로 새로운 세계로 떠날 준비를 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은 기이한 일이 발생하는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드러난 구절로 '길동'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낸다. 그리고 '길동'이 조선을 떠남으로써 갈등이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 '길동'이 근본적인 문제인 신분 제도에 의한 차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이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으로, 고전 소설의 주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글의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2 극

개념 이해

086~087쪽

1 × 2 하강 3 막 4 × 5 시나리오 6 ×

개념 적용 토끼와 자라

088~089쪽

• 작품 설명: 이 희곡은 잘 알려진 고전 소설 「토끼전」을 각색한 작품으로, 고전 소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였다.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 인간 사회를 풍자하고 교훈을 전달하는 동시에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해학적인 재미를 주고 있다.

핵심 보기

'토끼'의 간을 약으로 쓰려는 '용왕'	↔	살아남으려고 '용왕'을 속이는 '토끼'
'토끼'가 거짓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신하들	↔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토끼'

이문 체크 1 ○ 2 병 3 × 4 간 5 뱀장어 6 ×

이 희곡의 특징 1 ④

절정에 나타난 갈등 양상 2 ③

1 이 글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으로, 등장인물의 수나 배경에 제약이 많아 장면 전환이 자유롭게 못하다.

2 (라)~(바)는 절정 부분으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통독도

실력 쓰기 01 수일과 수일이 ①

090~091쪽

• 작품 설명: 이 희곡은 평범한 중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인 '수일'은 공부 문제로 '엄마'와 사사건건 갈등하던 중, 쥐에게 자신의 손톱을 먹여 또 다른 '수일'을 만들고자 한다. 이처럼 이 글은 사람의 손톱을 먹고 사람이 된 들쥐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대사와 행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핵심 보기

'수일'	↔	'엄마'
•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학원에 가지 않으려고 함.		• '수일'에게 공부와 학원을 강요함.
•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하지 않음.		• '수일'을 공부 잘하는 '수진', 옆집 아이와 비교함.

1 ③ 2 ③ 3 ⑤ 4 ②

1 이 글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 대본인 희곡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달한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소설이다.

- 2 이 글에서는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수일'과 '수일'을 학원에 보내려는 '엄마'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므로 갈등의 유형은 외적 갈등이다.
- 3 [A]는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하거나 조명이나 무대 장치, 음향 효과 등을 나타내는 지시문이다. 방백은 대사의 한 종류로,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 다른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하는 말이다. 지시문은 배우의 연기나 무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대사로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 4 '수일'은 '엄마'가 컴퓨터 선을 뽑아 간 것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고, '엄마'는 '수일'이 학원에 가지 않아서 화가 난 상태이다.

독답토닥

실력

쌓기 01 수일리와 수일리 ②

092~093쪽

소주제 발단 갈등

1 ③ 2 ③ 3 ②

- 1 '아빠'는 '엄마'에게 학원이 신다는 정보를 '수일'에게 전해 주었는지를 묻고, '엄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말다툼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수진'은 백 점 맞은 시험지를 '엄마'에게 보여 주고 있다.
 ② (라)에서 '수일'은 자신이 축구를 잘한다는 사실과 함께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말하고 있다.
 ④ (라)에서 '수일'은 학원이 쉬는 날인지 모르고 학원에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
 ⑤ (다)에서 '엄마'는 정우가 백 점 맞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정우 엄마의 전화를 받고 언짢아하고 있다.
- 2 방문을 열지 않으면 저녁밥을 주지 않겠다는 '엄마'의 말은 ㉠의 뒤에 한 말이며 실제로 '엄마'가 '수일'에게 저녁밥을 주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수일'은 자신이 컴퓨터를 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선을 뽑아 간 '엄마'에게 화가 났다.
 ② 옆집 정우는 수학 시험에서 백 점을 맞았으며, 정우와 '수일'을 비교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수일'은 화를 냈다.
 ④ '엄마'가 "축구가 밥 먹여 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쉽니?"라고 말하며 '수일'의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고, '수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수일'은 아들을 그렇게 못 믿으며 상처를 받았다.
 ⑤ '엄마'가 학원에 가기 싫다는 '수일'을 억지로 학원에 보내고,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수일'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 3 '아빠'는 '수일'에게는 '엄마'를 이해하라고 말하고, '엄마'에게는 '수일'을 너무 나무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빠'가 '수일'과 '엄마'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답토닥

실력

쌓기 01 수일리와 수일리 ③

094~095쪽

1 ⑤ 2 ① 3 ② 4 하기 싫은 건 다 그놈 시키고, 나는 매일 놀기만 할 텐데.

- 1 가족들이 대청소를 할 때 '수진'에게 장난을 치고, 쥐를 무서워하는 '수진'에게 걸레를 던져 놀라게 하는 것으로 보아 '수일'이 장난치는 것을 좋아함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집 안으로 들어온 쥐를 잡으려고 쫓는 것으로 보아 '수일'이 겁이 없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쥐를 무서워하는 동생에게 걸레를 던지며 놀라게 하는 것으로 보아 '수일'이 동생을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점, 가족들이 모두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청소는 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점 등을 볼 때 '수일'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수일'이 욕심을 부리거나 냉정하게 행동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살아 있는 쥐를 연극 무대 위에 풀어 놓고 연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연출이다.
- 오답 풀이** ② 이 희곡은 '거실'을 주 배경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수일'네 가족이 집 안팎 대청소를 하는 장면에서는 '방'과 '정원'도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③ '엄마'가 거실 벽에 백 점 만점에 이십 점을 맞은 '수일'의 성적표를 붙여 놓았다고 하였으므로, 관객들이 볼 수 있게 크게 확대해 붙이는 것은 적절한 연출이다.
 ④ '수진'은 쥐를 보지 못한 상태이고 쥐는 소파 밑에 숨어 있는 상황이므로 음향 효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아빠'는 무대 밖에서 '수일'을 부르는 것이므로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⑤ '엄마'와 '수진' 역을 맡은 배우가 쥐를 피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큰 동작과 목소리로 연기하여 쥐의 등장을 관객들에게 인상 깊게 알릴 수 있다.
- 3 ㉠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수일'이 실제로 쥐에게 손톱을 먹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일'이 쥐에게 손톱을 먹여서라도 공부와 학원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수일'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시키려고 하고 있다.

독답토닥

실력

쌓기 01 수일리와 수일리 ④

096~097쪽

소주제 전개 손톱

1 ⑤ 2 ④ 3 ③ 4 ①

- 1 이 글은 쥐가 사람의 손톱을 먹고 그 손톱의 주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옛날이야기를 차용하여 '수일'과 '가짜 수일'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주인공 '수일'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며, '수일'이 '가짜 수일'에게 하기 싫은 일을 대신 시킴으로써 주인공의 바람을 실현시킨다는 설정을 취하고 있다.

2 '수일'은 스스로 자기의 손톱을 쥐에게 먹여 '가짜 수일'을 만들었으므로 이미 '가짜 수일'이 쥐임을 알고 있다.

3 '수진'은 '수일'과 달리 공부를 잘하여 '엄마'로부터 칭찬을 받고, 청소도 열심히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수일'과 비교되는 인물이다.

- 오답 풀이** ①, ⑤ '수진'은 '가짜 수일'의 존재를 모를뿐더러, '수일'이 '가짜 수일'을 만든 사실도 알지 못한다.
 ② 쥐가 나타난 것은 '수진' 때문이 아니다.
 ④ '수진'이 '수일'을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4 이 장면에서 무대의 조명을 끄는 것은 연극의 장면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실전

문제 01 수일과 수일

098~099쪽

1 ② 2 ⑤ 3 ② 4 ⑤ 5 ⑤ 6 ④ 7 쥐에게 자신의 손톱을 먹여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1 ㉠은 희곡의 처음 부분에 제시되어 등장인물과 장소 등을 설명하는 해설, ㉡은 배우에게 표정과 말투 등을 지시하는 지시문, ㉢은 등장인물이 하는 말인 대사이다.

2 '아빠'가 '엄마'와 '수일'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한 것은 맞지만, '엄마'와 '수일'에게 화를 내는 모습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3 '수일'은 처음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가짜 수일'을 보고 놀랐으나 곧 흥미를 갖게 되고, '가짜 수일'이 다시 쥐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이내 의기양양해져서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이 글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이다. 희곡과 소설은 갈등과 대립의 문학으로, 등장인물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 오답 풀이** ① 극 문학(희곡,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②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희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③ 극 문학과 소설 모두 작가가 꾸며 낸 이야기이다.
 ④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극 문학은 주로 대사와 지시문으로 표현된다.

5 '엄마'는 성적을 중시할 뿐이며 '수일'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6 (가)에는 '수일'과 '엄마'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외적 갈등의 유형 중 인물 사이의 갈등에 해당하는 예는 ④이다.

- 오답 풀이** ① 지진은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자연과 인간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②, ③ 사회와 개인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⑤ 개인의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

7 '수일'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가짜를 만들어 가짜에게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시키려고 하고 있다.

3 수필

개념 이해

100~101쪽

1 × 2 × 3 중수필 4 ○ 5 ○ 6 ×

바로바로 개념 적용 관찰아

102~103쪽

• **작품 설명:** 이 수필은 다리가 불편한 글쓴이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여 쓴 글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여 놀이에 갈 수 없었던 글쓴이에게 역할을 만들어 주며 함께했던 친구들의 배려와 깨끗 장수에게 들은 "괜찮아."라는 말을 통해 세상이 살 만한 곳이라고 깨닫는 과정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 나눔의 말, 부축의 말이라고 정리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 **핵심 보기**

글쓴이의 경험	이 글이 주는 감동이나 즐거움
-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나'를 배려했던 일 - 깨끗 장수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들었던 일	-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글쓴이의 태도 - 어린 시절, 글쓴이를 배려하는 친구들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위로 - 여러 가지 일화에 드러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태도의 중요성

지문 체크

1 ○ 2 어머니 3 × 4 × 5 ×
 6 괜찮아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1 ⑤

이 글이 주는 감동이나 즐거움 2 ④

1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소재로 하여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서술하였을 뿐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은 방과 후 골목에서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고, 글쓴이는 대문 앞 계단에 앉아 친구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다리가 불편한 자신의 처지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④ (마)와 (바)에서 글쓴이는 깨끗 장수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들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이 경험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2 어린 시절 친구들의 배려, 깨끗 장수의 말,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하는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 **작품 설명:** 이 수필은 글쓴이가 학창 시절 신학기에 느꼈던 외로움을 회상하며 쓴 글이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벗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정한 벗이 되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이 글에 쓰인 문학적 표현	의미
망망대해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
홀로 헤치는 파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어려움
사막	고독한 삶
• 내가 먼저 쌓아야 할 탑 • 내가 발을 경작해서 밟아야 할 열매	자신이 먼저 노력하여 진정한 벗이 되어야 함.



우리 인생에서 삶의 고난을 함께 이겨 낼 진정한 벗이 필요하며, 우리가 먼저 진정한 벗이 되고자 노력해야 함.

소주제 **처음 친구**

1 ③ 2 ⑤ 3 ④ 4 ③ 5 망망대해

- 이 글은 글쓴이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수필이다. 수필은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 아니며,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오답 풀이 ① 수필은 글쓴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생각이나 느낌과 함께 적은 고백적인 글이다.
 ② 수필은 일정한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글이다.
 ④ 수필은 글쓴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신변잡기적 성격의 글이다.
 ⑤ 수필은 글쓴이의 가치관, 인생관, 생활 방식, 정서 등 글쓴이의 독특한 개성이 녹아 있는 글이다.
- 처음 부분에서 글쓴이는 학창 시절 신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해 소외감과 외로움을 겪은 경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경험과 연관 지어 성인이 된 후의 나날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외로움, 소외감과 비할 수 없이 두렵고 힘든 나날임을 서술하고 있다.
- 글쓴이는 신학기에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속상함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새 서로 친해져 밥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혼자만 외톨이로 걸돈다는 생각에 소외감도 느꼈다.
- ㉠의 앞에서 힘든 인생을 망망대해(茫茫大海)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때, ‘홀로 헤치는 파도’는 고난, 시련과 같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 ‘망망대해(茫茫大海)’는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를 뜻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망망대해’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주제 **가운데 우정 끝 벗**

1 ④ 2 ③ 3 ⑤ 4 ⑤ 5 탑, 열매

- 이 글은 ‘망망대해’, ‘파도’, ‘사막’, ‘탑’, ‘열매’ 등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힘든 삶에서 진정한 우정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의 주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힘든 인생살이에서의 친구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조적 의미를 지니는 소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처음 부분에서 학창 시절의 경험을 보여 주고 있지만,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⑤ 글쓴이의 경험에 사회적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친구는 많지만 진정으로 벗이라 부를 만한 이가 몇이나 되는지 한 번쯤 되새겨 보라고 하였다. 이는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의 사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사)에서 진정한 벗이라 부를 만한 이가 몇이나 되는지 한 번쯤 되새겨 보며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이 글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④ 글쓴이는 (바)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힘이 되어 준, 돈독한 우정을 가꾸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러한 우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마)에서 목소리나 눈짓을 통해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는 우정을 돈독한 우정이라고 말하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 글쓴이는 (사)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 스스로가 먼저 상대방에게 참다운 벗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글쓴이는 (마)에서 험난한 삶을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애를 느끼게 해 주는 친구,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을 주는 친구와 함께한다면 힘든 세상도 살아 볼 용기가 솟는다고 말하였다.
- (사)에서 글쓴이는 우정은 상호 간의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쌓아야 할 ‘탑’과 내가 발을 경작해서 밟아야 할 ‘열매’는 자신이 먼저 노력하여 이루어야 하는 우정을 뜻한다.

III 비문학

1 설명하는 글

차근차근
개념 이해

110~111쪽

1 처음 2 일반화 3 ○ 4 ○ 5 주제 6 ×

바로바로
개념 적용

은행 문은 왜 안쪽으로 열릴까

112~113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문이 열리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과 문이 열리는 방향에 담긴 건축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주택의 현관문과 아파트의 현관문, 방문, 은행 문 등이 열리는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핵심 보기

현관문	• 주택의 현관문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 밖으로 열림. • 아파트의 현관문은 비상시의 대피가 수월하도록 밖으로 열림.
방문	방문은 공간 활용과 행동 과학 측면에서 안쪽으로 열림.
은행 문	은행 문은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안쪽으로 열림.

지문 체크 1 × 2 × 3 × 4 대피 5 거실
6 도난, 안쪽

이와 같은 글을 요약하는 방법 1 ③

이 글의 통일성 판단 2 ③

-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설명하는 글을 요약할 때에는 설명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야 한다.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한 요약은 주장하는 글의 요약 방법이다.
- 글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뿐, 다양한 종류의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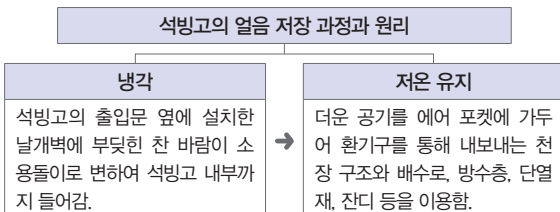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조상의 슬기가 낡은 석빙고의 비밀 ①

114~115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였다. 석빙고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소주제 처음 석빙고

1 ② 2 ② 3 ② 4 ①, ② 5 ③

- 이 글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에 담긴 정보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글쓴이의 개성적 표현이 드러나는 글은 수필이다.
- 석빙고는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하는 장소였지 얼음을 만드는 장소는 아니었다.

오답 풀이

- (가)를 통해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도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에 보관하여 여름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에서 경주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평균 영상 3.9도,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는 영상 15도 안팎이라고 하였다.
- (라)에서 날개벽을 이용하여 석빙고 내부를 냉각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나)와 (마)에서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저온 상태 유지라고 하였다.

- ㉠, ㉡, ㉢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부분으로 중심 내용이 아니다. ㉠은 현대인들이 얼음을 구하기 위해 냉장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고, ㉡은 옛사람들도 ㉠의 현대인들처럼 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 (마)를 요약하기 위해 첫 번째 문장을 선택하고, 이 문장에서 덜 중요한 부분을 삭제해서 좀 더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뉜다고 서술한 것으로 볼 때, 두 단계를 차례대로 설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조상의 슬기가 낡은 석빙고의 비밀 ②

116~117쪽

소주제 가운데 저장 끝 슬기

1 ③ 2 ④ 3 ⑤ 4 ⑤ 5 조상(들)의 슬기

- 글쓴이는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석빙고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알리고 있다.
 - (바)에서 에어 포켓에 더운 공기를 가두어 놓았다가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그 공기를 밖으로 빼내었다고 하였다.
 - (바)~(아)는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주장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다.
②, ④ 이야기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다.
③ 주장하는 글 가운데, '문제-해결 방안'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다.
- (바)에서는 석빙고가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천장 구조와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다. (사)에서는 석빙고가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요소들을 포함하여 내용을 요약한다.
 - 글쓴이는 겨울철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원리를 설명하며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강조하고 있다.

- **지문 설명:** 이 글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로 형성한 첫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까닭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 **핵심 보기**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	---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편견과 선입견의 원인이 되므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함.

소주제 처음 첫 만남

1 ③ 2 ③ 3 ⑤ 4 가설 검증 바이어스

- 1 (다)의 중심 내용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사람들'로, 마지막 문장에 드러나 있다.
- 2 ㉠은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내용이다.
- 3 ㉡은 글에 제시된 구체적인 정보와 맥락을 근거로 하여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 4 사회 심리학 용어인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으로, (마)에 제시되어 있다.

소주제 가운데 가설 검증 바이어스 끝 당부

1 ② 2 ④ 3 ⑤ 4 ③ 5 ②

- 1 (사)에서는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혈액형 성격학'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바)에서 사회 심리학자인 '스나이더'와 '스완'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입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사)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 ④ (바)를 통해 '스나이더'와 '스완'이 실시한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질문 26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자)에서 첫인상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제한된 정보뿐인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여 마음대로 형성한 것이기에 위험하다고 하였다.

- 2 글쓴이는 (자)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 3 ㉠은 글 속에 나타난 내용을 활용하여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 4 (자)는 글의 끝부분으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위험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당부가 제시되어 있다.
- 5 ㉡의 예를 통해 사람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사람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지문 설명:** 이 글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의 일 부분이다. '독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통일성을 고려하여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 **핵심 보기**

(가)	독도의 경제적 가치
(나)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
(다)	독도에 살았던 강치 →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해야 함.
(라)	독도의 위치적 가치

1 ① 2 ② 3 ③ 4 ㉡을 (라) 문단으로 이동해야 한다.

- 1 (다)에서 독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때 무자비한 포획으로 멸종되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② (나)를 통해 독도에 희귀한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구역이기 때문에 어류의 먹이가 풍부하여 겨울과 봄에는 명태 어장이, 여름과 가을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 ④ (나)에서 독도는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암석과 지형, 지질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라)에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보충 자료

| 배타적 경제 수역 |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 2 이 글은 독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는 독도에 살았던 강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이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삭제해야 한다.

- 3 글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이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해야 한다. (나)에서는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㉓는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 4 (가)는 독도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㉔은 독도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주장하는 글

차근차근
개념 이해

124~125쪽

1 본론 2 설득 3 ○ 4 × 5 기억, 집중 6 목적

바로바로
개념 적용

126~127쪽

◆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

- **지문 설명:** 이 글은 극지 연구에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글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극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극지는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 극지는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함.



극지 연구에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

◆ 인권이 뭘까요

- **지문 설명:** 이 글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글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하여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 핵심 보기

- | | |
|------------------------------|---|
|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약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인권이 책임을 동반한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함. |
|------------------------------|---|

지문 체크 1 × 2 ○ 3 기초 과학 4 보편적 5 ○
6 책임

정보나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한 이 글의 내용 예측 1 ②

구조에 따른 이 글의 내용 요약 2 ⑤

- 1 (가)에서는 극지 연구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나)와 (다)에서는 극지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극지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2 (마)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모두 소중히 여겨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능력
실력

쓰기 01 더위가 알려 준 진짜 충격 ①

128~129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기후 변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서론	더위가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고민, 기후 변화
본론	기후 변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결론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소주제 서론 기후 변화

- 1 ① 2 ③ 3 ④ 4 ⑤ 5 더위의 고통은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1 이 글의 서론에서 더위를 통해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본론에서 기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글쓴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이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이자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라)에서 미국 국립 해양 대기청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에서 '더위. 이보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있을까?'와 같이 화제와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 ⑤ '더위'라는 실생활과 밀접한 소재로부터 기후 변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2 <보기>는 글쓴이가 해 온 활동, 즉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 3 (라)에서 글쓴이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서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그래프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4 (다)에서 글쓴이는 더위가 더 이상 단순 기상 현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더위는 모든 이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이며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다.
- ② (가)에서 더위 앞에 나약해지는 사람들을 보여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척을 해도 사람은 결국 하나의 생물일 뿐이라고 하였다.
- ③ (가)에서 여름의 무더위에 세상만사가 귀찮아질 정도이니 온도 몇도의 차이가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다)에서 우리가 겪기 시작한 유례없는 무더위는 우리 문명이 그동안 쌓아 올린 빗더미의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 5 글쓴이는 더위로 인한 고통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그 이후를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행운아라고 하였다.

소주제 본론 기후 변화 결론 인식

1 ⑤ 2 ④, ⑤ 3 ④ 4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 이 글은 글쓴이가 독자에게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자원 아껴 쓰기, 녹색 성장 준비하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썼다.
- (바)에서는 지구의 일 년 치 자원을 12월 31일에 다 쓰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실제로 지구의 1년 치 자원이 모두 소모되는 날(지구 생태 용량 과용의 날)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바)를 통해 해가 갈수록 1년 치 자원이 모두 소모되는 날이 앞당겨지고 있고, 에너지 사용량과 그 증가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는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우리나라가 현재처럼 자원을 소비하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구가 3.3개 필요하다는 것이지 자원 고갈의 속도가 3.3배 빨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③ (바)에서 설명하는 '지구 생태 용량 과용의 날'은 지구의 일 년 치 자원을 12월 31일에 다 쓰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원이 모두 소모되는 날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지구의 자원이 1년 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 (사)에서 글쓴이는 더위 자체보다 사람들이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충격이라고 하였다.
- 글쓴이는 지금부터라도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껴 사용해야 하며,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문 설명:** 이 글은 인간이 생태계에 함부로 개입하여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글쓴이는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과 생태계에 함부로 개입하는 일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인간의 개입으로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된 예

- 카이밥 고원의 사례
- 미국 과학자들의 실험
- 클리어 레이크의 사례



생명의 그물을 지켜 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함.

소주제 서론 생태계

1 ② 2 ② 3 ④ 4 포식 동물이 사라지자 저희끼리 먹이를 두고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카이밥 고원과 과학자들의 실험을 사례로 제시하여 자연 현상에 인간이 개입하여 생태계에 혼란이 생긴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나)와 <보기>를 통해 인간의 개입 후 사슴의 수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어질 내용에는 사슴의 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든 이유가 제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의 경험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보기>는 포식 동물을 없앤 후의 사슴 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므로 포식 동물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가 제시될 것이라는 예측은 적절하지 않다.
 ④ 그래프를 통해 글쓴이가 카이밥 고원을 예로 제시한 이유는 추측할 수 없다.
 ⑤ 글쓴이는 인간이 생태계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생태계 질서를 지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학자들은 바다의 포식 동물인 불가사리를 없애고 물웅덩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였다. ④의 소재목이 '과학자들의 실험'이지만 전체적인 글의 흐름으로 보아 과학자들의 실험 설계 방법과 실험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 검은꼬리사슴은 늑대 같은 포식 동물이 있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만큼 적당한 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주제 본론 1 실험 본론 2 살충제 결론 생명의 그물

1 ② 2 ④ 3 ② 4 생명의 그물

-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다고 해서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글쓴이는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해 생태계에 혼란을 가쳐온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생명의 그물에 손을 대기보다는 생명의 그물을 지켜 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루살이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렸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글쓴이는 생태계를 복잡하고 거대하게 얽힌 '생명의 그물'이라고 표현하였다.

IV 다양한 언어생활

1 대화

차근차근
개념 이해

138쪽

1 대화 2 언어폭력 3 ○

바로바로
개념 적용 그래 우린 친구야

139쪽

• **작품 설명:** 이 희곡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극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부딪히고 화해하며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잘 담고 있어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엿볼 수 있는데, 수록된 부분에서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핵심 보기**

이 글에 나타난 언어폭력	
비속어	주둥이
비아냥대는 말	노래는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비난하는 말	넌 노래를 말로 하나?
차별하는 말	꿀 먹은 병어리라고 되었니?
상대가 싫어하는 말	나가수



언어폭력은 언어폭력을 당한 '예림', 언어폭력을 가한 학급 친구들, 그리고 학급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문 체크 1 × 2 ○ 3 예림

이 대화에 나타난 언어폭력 1 ⑤

- 1 이 글에서와 같이 언어폭력이 지속되면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다큐멘터리를 본 감상 / 친구 간의 대화 140~141쪽

◆ (가) 다큐멘터리를 본 감상

• **지문 설명:** 이 글은 말의 영향력을 실험한 다큐멘터리를 본 후에 쓴 감상문이다. 글쓴이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싹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난 후 언어가 큰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싹밥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후 변화를 관찰한 실험	→	말은 그 자체로 힘을 지니고 있음.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싹밥과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싹밥의 상태가 서로 다름.		

◆ (나) 친구 간의 대화

• **작품 설명:** 이 글은 드라마 대본 『라이벌』 중 일부본이다. '옥림'과 '세리'가 서로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하여 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 폭력적인 언어가 갈등을 조성하고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핵심 보기**

'옥림'과 '세리'의 대화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여 갈등이 깊어짐.	→	언어폭력은 갈등을 일으키고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	-----------------------------------

1 ⑤ 2 ③ 3 ④ 4 ⑤

- 1 (가)의 실험은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나)의 대화는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해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2 (가)에 제시된 싹밥 실험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각각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 3 '옥림'과 '세리'는 상대의 실력을 깎아내려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4 '옥림'과 '세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⑤에서 '옥림'은 '세리'의 연습이 부족하다며 '세리'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은 채 말하였고, '세리'도 '옥림'의 연습이 부족하다며 '옥림'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였다.

2 방송 보도/연설

차근차근
개념 이해

142쪽

1 ○ 2 연설 3 ×

바로바로
개념 적용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에 대한 방송 보도

143쪽

• **지문 설명:** 이 방송 보도는 아시아인의 비만 기준에 대한 논란을 화제로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적이 다른 두 한국계 여성의 사례와 최근의 연구 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핵심 보기**

주장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을 올려야 함.
근거	- 러시아보다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 - 동양인의 비만 지수는 1980년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함. -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에서 정상 체중인 사람들은 근육량이 적음.



방송 보도의 타당성 판단	근거와 주장 간에 연관성이 있고,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오류가 없으므로 방송 보도의 내용은 타당함.
---------------	--

지문 체크 1 × 2 × 3 ○

이 방송 보도의 타당성 판단 1 ⑤

- 1 이 방송 보도에서는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적이 다른 두 한국계 여성의 사례, 최근의 연구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다. 내분비내과 교수의 의견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근육량이 적어 뼈가 약해진 사례가 많다는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 날씬한 사람들이 골밀도가 좋지 않다는 교수의 의견은 보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이다.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학생회장 선거 연설

144~145쪽

· 지문 설명: 이 답화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접할 수 있는 주제의 연설로, 학생회장 후보자의 공약 발표 연설이다. 연설자는 네 가지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공약마다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핵심 보기

공약	타당성 판단	판단의 근거
공약 1: 의형제·의자매 제도 실시	타당하지 않음.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
공약 2: 건의함 설치	타당하지 않음.	적은 사례를 일반화하고 있어 다수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
공약 3: 매일 아침 식사 제공	타당하지 않음.	실현 불가능함.
공약 4: 학생 자치회 활성화	타당함.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함.

1 ② 2 ③ 3 ③ 4 최준서에게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 1 이 답화의 종류는 연설로, 연설에는 말하는 이의 주장이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답화에 드러난 주장(의견)과 근거를 파악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어야 한다.
- 2 이 연설의 처음 부분인 (가)에서 연설자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질문을 던져 듣는 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자신이 생각하는 학생회장으로서의 자세를 밝히고 있다. 학생회장으로서의 계획인 공약은 소개 인사를 하고 포부를 밝힌 후에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 아직 부족합니다.'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가)에서 연설자는 낙타 이야기를 제시하여 학생회장이 된다면 낙타와 같이 섬김의 자세로 학생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④ 연설자는 공약을 제시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의 순서를 붙여 청중에게 각 공약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연설의 시작 부분에서 '여러분! 여러분은 낙타라고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라고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청중이 연설에 집중하게 만들고 청중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3 아침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다큐멘터리 자체는 믿을 수 있는 정보이다. 하지만 학생회장 후보자가 내세운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공약은 학생 수준에서 실천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의형제·의자매 제도를 실시하면 다른 학년의 선후배들과 서로 돕고 지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② 의형제·의자매 제도는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지만 같은 반 친구들과의 단합을 도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의형제·의자매 제도의 실시는 반 친구들과의 단합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

④ 건의함 설치 공약의 근거로 세 명의 학생들이 누리소통망에 의견을 제시한 것을 들었다. 세 명이라는 적은 사례를 일반화하여 마치 학교 전체 학생들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므로 이 공약은 타당하지 못하다.

⑤ 어떤 집단의 문제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생 자치회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공약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 4 이 연설의 연설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학생회장으로 뽑아 달라고 말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

면담

최근

개념

이해

146쪽

1 목적 2 준비 3 ○

바로바로

개념

적용 요리 예술사와의 면담

147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면담하는 방법이나 면담할 때 지켜야 할 예절 등이 잘 나타나 있다.

· 핵심 보기

(가)	첫인사와 면담 목적 제시
(나)~(라)	질문과 답변
(마)	소감과 감사 인사

지문 체크

1 × 2 ○ 3 감사 인사

이 면담의 목적과 면담 내용 1 ④

- 1 이 면담은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면담이다. 그런데 ④는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시인 할머니를 만나다 ①

148~149쪽

• 지문 설명: 이 글은 손자에게 쓴 편지를 모아 『행복이』라는 책을 펴낸 김초혜 시인을 면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시인이 손자에게 편지를 쓰게 된 사연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면담이며, 면담 목적에 맞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 핵심 보기

면담 목적	김초혜 시인이 손자에게 쓴 편지를 엮어 책으로 낸 사연을 알고 싶음.
질문 내용	• 손자에게 편지를 써서 책으로 줄 생각을 하게 된 까닭 • 시인이 생각하는 편지의 이로움 • 손자에게 편지를 써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 시인이 생각하는 손자라는 존재 • 시인이 생각하는 자식 교육과 손자 교육의 차이 • 손자가 책 읽기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조부모에게 받은 영향 • 손자들의 휴대 전화 사용 • 손자와 그 또래 세대에게 전하는 시인의 당부

1 ② 2 ⑤ 3 ⑤ 4 ④

- 이 면담은 면담 대상인 김초혜 시인이 손자에게 쓴 편지를 엮어 책으로 낸 사연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진행되었다.
- (나)에서 시인은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말(음성 언어)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정을 더 깊게 해 준다고 하였다.
- (다)에서 시인은 편지를 통해 손자에게 손해를 보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과 다른 이에게 인식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시인은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시인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③ 시인은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④ 시인은 역사를 망각하면 나라의 장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은 면담 대상인 김초혜 시인의 집안 분위기와 시인의 남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질문할 내용을 준비한 것이다.

토의토의

실력 쌓기 01 시인 할머니를 만나다 ②

150~151쪽

1 ② 2 ③ 3 ② 4 책은 사람을 만드는 기본 영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책 읽기가 기본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면담을 할 때는 먼저 면담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한다. 면담 상황에 따라 계획했던 질문의 내용이 나 질문 순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면담의 목적을 바꿀 수는 없다.

- (아)에서 김초혜 시인은 손자와 그 또래 세대들이 자신의 개성을 찾아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며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시인은 부모들에게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버리고 자식들이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② 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참다운 성공이라고 하였다.
- ④ 시인은 자신이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⑤ 시인은 본인의 개성을 찾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해 나가는 것이 참다운 성공이라고 하였다.

- 이 면담은 김초혜 시인이 손자에게 편지를 쓰게 된 사연을 알고자 진행되었다. 이러한 면담 목적을 고려했을 때, 자식 교육과 손자 교육의 차이점((마))과 손자들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질문((사))은 면담 과정에서 면담 대상의 대답에 따라 추가된 질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바)에서 김초혜 시인은 손자의 책 읽기 습관에 대한 질문에 책을 사람을 만드는 기본 영양이므로 책 읽기는 밥을 먹듯이 몸에 익히는 기본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4 토의

지금까지 개 념 이해

152쪽

1 ○ 2 논제 3 ○

반려바른 개 념 적용 농구 시합에 관한 학급 회의

153쪽

• 작품 설명: 이 글은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의 대본 중 일부이다. 제시된 부분에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급 회의 장면을 통해 학생들의 회의 참여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핵심 보기

반 아이들의 말하기 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말할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음.
↓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말하기를 해야 함.

지문 체크 1 ○ 2 × 3 ○

학급 회의에 참여한 반 아이들의 태도 1 ④

- 반 아이들은 7반과 재경기를 하자는 ‘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만 말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고 ‘욱’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지문 설명:** 이 대화는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논제로 진행된 패널 토의이다. 세 명의 토의자가 각자 준비해 온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자 간 의견 교환과 청중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핵심 보기**

토의 논제와 토의자 소개	• 논제: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 • 토의자: '지민', '정우', '나라'
토의자 제안	• '지민': 벼룩시장 • '정우': 먹거리 가게 • '나라': 사진 찍기 체험장
토의자 간 의견 교환	'지민', '정우', '나라'가 각자의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함.
청중과의 질의응답	청중인 '민재', '다혜', '수아'는 각각 '지민', '정우', '나라'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음.
토의 마무리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함.

1 ① 2 ③ 3 ⑤ 4 ① 5 ②

1 패널 토의는 패널로 선정된 3~6명의 토의자가 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후, 청중의 질의에 응답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토의 유형이다.

오답 풀이 ② 주로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권위자나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한 뒤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토의 유형은 심포지엄이다.

③, ④ 특별한 절차나 규칙을 정하지 않고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이 논제에 대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 유형은 원탁 토의이다.

⑤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토의자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한 후, 청중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 유형은 포럼이다.

2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③과 같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주제는 토의의 논제로 적절하지 않다.

3 '나라'는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하려면 개성 넘치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좋고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사진을 갖고 싶어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② '지민'은 벼룩시장은 판매할 물건들이 집에서 쓰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새것만 찾는 친구들에게 절약 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하였다.

③, ④ '정우'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을 제시하여 아무리 좋은 행사여도 먼저 배가 불러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파는 먹거리 가게는 다른 가게보다 훨씬 더한 재미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4 사회자는 토의를 시작하면서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논제와 토의자로 참여할 세 학생을 소개하고 있다.

5 '나라'는 토의 과정에서 ①과 같이 상대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토의자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력적인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하기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토의와 토론의 차이 |

	토의	토론
목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주장과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
답화 방법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주장 제시
상호관계	상호 협력적	상호 경쟁적
핵심 사고력	문제 해결적·협력적 사고	논리적·비판적 사고

1 ⑤ 2 ④ 3 ② 4 ① 5 나라

1 토의자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하며, 사회자는 토의자들이 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토의를 진행해야 한다. 토의를 평가할 때에는 토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2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협력적으로 의논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다)는 제안된 의견에 대하여 토의자들이 생각을 교환하는 단계로, '지민', '정우', '나라'는 서로의 제안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말하며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가 '먼저 지민이의 제안에 질문에 주십시오.'와 같이 토의자들의 발언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토의는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협력하는 말하기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 논의하는 것은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⑤ (다)의 토의자들은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문제에 대해 각자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토의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각 토의자들은 상대의 질문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제안과 상대의 제안을 비교하거나 문제 상황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3 ①은 벼룩시장에 대한 친구들의 흥미를 높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지민'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 벼룩시장 홍보물을 만들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판매하지 않는 물건을 활용하여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지는 않았다.

4 '정우'는 여학생들과 달리 남학생들이 사진 찍기 체험장에 관심이 적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나라'의 제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5 '나라'는 '정우'의 질문을 듣고 '좋은 지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우'와 '지민'의 질문에 대해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것이며 '대훈'의 아버지를 통해 의상과 소품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독단토익

실력 쌓기 01 축제 장터에서 무엇을 운영할까? ③ 158~159쪽

1 ③ 2 ⑤ 3 ② 4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1 '수아'는 '나라'에게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할 경우 공주 드레스 외에 다른 옷도 더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이 내용은 '나라'가 이전에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수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아'는 '나라'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질문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하은'은 "그렇다면 저는 나라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라'의 의견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② '다혜'는 "먹거리 가게를 운영하려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같은 취사도구가 필요한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며 '정우'에게 먹거리 가게 운영 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④ '민재'는 '지민'에게 "벼룩시장 행사가 끝나고 남은 물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하였다.

⑤ '대훈'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만화나 영화 주인공들의 의상뿐만 아니라 특수 분장을 할 수 있는 재료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러한 소품들을 빌려주실 수 있다고 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였다.

- 2 '유미'는 김밥과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에 있어 올바른 토의 태도를 지니지 못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김밥과 샌드위치 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은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발언은 ⑤이다.

오답 풀이 ① 김밥과 샌드위치 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나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② 김밥과 샌드위치 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③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는 말하기가 아니다.

④ 김밥과 샌드위치 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 3 '정우'는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쁘게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토의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

- 4 토의자 간 의견 교환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끝에 축제 장터에서 사진 찍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V 문법

1 언어의 본질

초급 개념 이해

162~163쪽

1 언어 2 ○ 3 필연적 4 자의성 5 사회적 6 ×
7 역사성 8 ○ 9 창조성

기초 토크

학습 활동 문제

164쪽

1 (1)-㉠ (2)-㉡ (3)-㉢ (4)-㉣ 2 (1) ㉠ (2) ㉡ (3) ㉢, (4) ㉣

시험에는 이렇게 1 ② 2 ④

- 1 '므지게'라고 부르던 말이 시간이 지나 '무지개'가 된 것은 말 소리가 변한 것으로,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언어의 창조성은 새로운 낱말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 2 '스마트폰'과 '인공 지능'은 새롭게 생긴 대상과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 생겨난 말이다. 이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독단토익

실력 쌓기

165~166쪽

1 언어 2 ② 3 ④ 4 ③ 5 ② 6 ② 7 (언어의) 창조성 8 ② 9 ① 10 ④, ⑤ 11 (1) 자의성 (2) 사회적 (3) 창조성 (4) 역사성

- 1 언어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의미(내용)와 그것을 표현하는 말소리(형식)로 표현된다.

- 2 자의성은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말소리가 언어마다 다르다는 점, 같은 말소리이지만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한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유의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의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②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므로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말소리와 말의 의미가 필연적인 관련이 있다면 [문]이라는 말소리는 하나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문]은 우리말로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띄워 놓은 곳', 영어로는 '달(moon)'을 의미한다.

③ 말소리와 그 의미가 결합하는 이유가 필연적이라면 비슷한 의미를 지닌 유의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④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언어마다 제각각 다

르다는 것은 말소리와 단어의 의미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차다’라는 말소리가 하나의 의미로만 필연적으로 연결되었다면 동음이의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3 민지는 ‘은하수’라는 단어를 임의로 ‘사랑강’으로 바꾸어 말하였다. ‘은하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하”를 강(江)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로 약속한 것인데 민지는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4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자유롭게 언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언어를 만들어 오랫동안 사용하였다고 해도 언어가 변화하는 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나무’를 각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 것은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의성의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오늘날에 ‘꽃’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과거에는 ‘꽃’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가 변한 것으로 언어의 역사성(소리의 변화)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③ ‘이메일’과 ‘컴퓨터’는 기존에 없던 대상이 생기면서 새로운 말이 생긴 것으로, 언어의 역사성(언어의 생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④ ‘조몬’은 ‘천(千)’, ‘가람’은 ‘강(江)’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사라진 말로 언어의 역사성(언어의 소멸)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⑤ ‘어리다’는 과거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언어의 역사성(의미의 변화)을 보여 주는 예이다.

6 <보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된 예이다. ‘세수(洗手)’는 과거에는 ‘손을 씻다.’의 의미로 사용했으나 현재에는 ‘손이나 얼굴을 씻다.’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오답 풀이 ① ‘운’은 숫자 ‘백(百)’을 의미하는 옛말로 과거에는 사용되다가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말이다.

③, ⑤ ‘누리꾼’, ‘인공위성’은 새로 만들어진 대상이나 개념을 이르기 위해 새롭게 생긴 말이다.

④ ‘수박’은 예전에는 ‘슈박’이라고 불렸으며, 이는 말소리가 달라진 예이다.

7 사람은 한정된 단어와 문장으로 새로운 말이나 문장을 무한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창조성이라 한다.

8 ‘그레인저 선생님’은 ‘피나’가 ‘펜’이라는 말로 바뀐 이유를 설명하며,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져 사용되는 말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언어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9 ‘닉’은 ‘피나’도 단어의 의미와 필연적인 관계없이 붙인 이름이라는 점(언어의 자의성)을 들어 자신이 ‘펜’에 ‘프린들’이라는 이름을 붙인(언어의 창조성)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펜’에서 ‘프린들’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의도적 개입에 따라 변한 것이므로 역사성과는 관련이 없다.

10 제시된 내용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맺었다는 점에서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표준어가 아니었던 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표준어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가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과도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짜장면’이 표준어로 인정된 이유는 ‘자장면’을 대신할 말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짜장면’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장면’ 역시 계속해서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

②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표준어로는 ‘자장면’이라는 표기만 인정되었으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자장면’이 사용되지 않고 ‘짜장면’이라고 사용되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③ 이 글은 ‘짜장면’이 표준어로 인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로, ‘자장면’이라는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드러나지 않는다.

11 (1)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므로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2)는 언어를 개인이 함부로 바꾸어 부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예이므로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3)은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만드는 예이므로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4)는 단어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여 그 의미가 축소된 예이므로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문법 정리

167쪽

① 의사소통 ② 필연적 ③ 사회성 ④ 시간 ⑤ 창조성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체크 개념 이해

168~171쪽

1 품사	2 ×	3 가변어	4 체언	5 ○	6 대명사
7 부사	8 형용사	9 ○	10 ×	11 수사	12 ×
13 동사	14 형용사	15 활용	16 관형사	17 ○	
18 ×	19 2	20 ○			

기초 토크

학습 활동 문제

172~173쪽

- 1 (1) • 형태가 변하는 낱말: 기쁘다, 달리다, 흔들다, 예쁘다 / • 형태가 변하지 않는 낱말: 매우, 설악산, 구름, 꽃 (2) • '풍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낱말: 설악산, 구름, 꽃 / • '정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낱말: 매우 (3) •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달리다, 흔들다 / •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 기쁘다, 예쁘다 / •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설악산, 구름, 꽃 2 •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윤서, 영화, 민호 / •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주말, 약속, 공포 / •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낱말: 너, 우리, 거기 / • 수량을 나타내는 낱말: 둘, 셋 / •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 첫째, 둘째 3 (1)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읽는다, 일어났다, 떠든다 / (2)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어둡다, 조용한데 4 (1) 바깥 (2) 새 (3) 온 (4) 어떤, 가장 /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새, 온, 어떤 /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 바깥, 가장 5 (1) ㉠ (2) ㉡ (3) ㉢ 6 •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낱말: 이런 / • 부름을 나타내는 낱말: 여보세요 / • 대답을 나타내는 낱말: 네

시험에는 이렇게

- 1 ㉢ 2 ㉤ 3 내려서, 하얏다 4 ㉡ 5 ㉢ 6 ㉣

- 1 '화분', '몹시', '앗'은 문장에서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반면, '가다', '맛있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 2 ㉤의 '두'는 뒤에 나오는 명사 '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수사로, 수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
- 3 '내려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하얏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4 ㉡의 '무척'은 형용사 '빠르게'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① '새'는 명사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③ '옛'은 명사 '추억'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④ '모든'은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⑤ '어느'는 명사 '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5 '가'와 '를'을 서로 바꾸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게 되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 오답 풀이** ① 제시된 문장에 쓰인 조사는 '가', '를', '은', '이다'로, 모두 네 개다.
②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 '이어서, 이고, 이면' 등과 같이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이다'를 제외한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④ '만'은 한정을 의미하는 보조사이다.
⑤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의미하는 보조사이다.
- 6 ㉣에는 감탄사가 쓰이지 않았다. '준현아'는 명사 '준현'에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조사 '아'가 붙은 말이다.

보충 자료

| 보조사 |

조사 중에서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한다.

- 예 • 고기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아. →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임.
• 친구와 영화를 보고 밥도 먹었다. →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

토익 토익

실력 쌓기

174~178쪽

- 1 ㉤ 2 ㉢ 3 ㉡ 4 ㉤ 5 ㉣ 6 ㉠ 7 ㉡:
비, 우산, 가방, 사탕 / ㉠: 걱정, 우정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예쁘다, 가볍다 / 형용사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명사: 2개, 수사: 1개, 형용사:
1개, 동사: 1개, 관형사: 1개, 조사: 2개 36 ㉠ 37 ㉠~㉢
중에서 품사가 다른 낱말은 ㉠('두')이다. '두'는 의미를 기준으로
관형사, 기능을 기준으로 수식언, 형태를 기준으로 불변어에 속한
다. 38 ㉠

- 1 낱말의 품사를 알면 낱말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낱말의 품사를 안다고 해서 그 낱말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우리말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9품사로 나눌 수 있다.
②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③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④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지닌 낱말들을 묶어 놓은 낱말의 무리를 의미한다.
- 2 용언(동사, 형용사)과 서술격 조사 '이다'가 가변어에 해당하며, 가변어를 제외한 모든 낱말이 불변어에 속한다. '돌아가다'는 동사이고, '작다'는 형용사이므로, 두 낱말은 가변어에 속한다.
- 3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책상'과 '희망'은 명사, '돌아가다'는 동사, '매우'는 부사, '작다'는 형용사에 속한다.
- 4 낱말은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의 '아름다웠다'는 문장의 주어인 '바다'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용언은 주로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 오답 풀이** ① '무척'은 용언인 '놀다'를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② '앗'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다.

- ③ '에서'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이다.
 ④ '그'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다.

- 5 '신발', '책'은 명사, '이것'은 대명사, '둘'은 수사로, 모두 체언에 속한다. ④는 대명사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 6 '셋'과 '서너'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고, '그녀', '그곳'은 사람, 사물,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사람', '메아리', '칫솔'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7 명사 중에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낱말을 구체 명사,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낱말을 추상 명사라고 한다.
- 8 ④의 '이'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로 뒤의 '사람'을 꾸며 준다.
- 9 밑줄 친 낱말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에 해당한다. 수사는 체언이므로 관계언인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 10 '씻고'와 '오세요'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붉고'와 '향기롭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모두 용언에 속한다.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통 서술어가 오는 자리에 위치한다.
- 11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말한다. 제시된 문장에서 '높은'과 '늦게'는 형용사, '새우면서',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지각했다'는 동사이므로 용언의 개수는 6개이다.
- 12 '받았다'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졌다'라는 의미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하는 낱말이다.
- 13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4 '먹는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나머지 서술어 '푸르다', '굵다', '단단하다', '맛있게', '덥고', '습하다'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5 '날고', '잘랐다', '신으셨다', '업고'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크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6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다/-는다', 명령을 나타내는 '-어라/-아라', 어떠한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를 나타내는 '-자'를 붙여 활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할 수 없다. 제시된 낱말 중 형용사는 '예쁘다'와 '가볍다'이고, '겉다', '마시다'는 동사이다. 형용사는 '예쁘다', '예뻐라', '예쁘자', '가볍는다', '가벼워라', '가볍자'와 같이 현재 시제,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 17 밑줄 친 낱말은 다른 낱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

다. '옛'은 관형사로 명사인 '친구'를 꾸며 주고, '과연'과 '아주'는 부사로 각각 문장 전체와 형용사인 '궁금하다'를 꾸며 준다.

오답 풀이 ①은 용언, ②는 독립언, ③은 관계언, ④는 체언에 대한 설명이다.

- 18 ㄱ은 관형사이고, ㄴ은 부사이다. 관형사에 비해 부사는 문장 내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① ㄱ은 관형사로, 관형사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② ㄴ은 부사로, 부사는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③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수식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⑤ 관형사와 달리 부사의 뒤에는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보충 자료

| 보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부사 |

수식언 중에서 관형사에는 보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부사 뒤에는 보조사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예 나는 그 일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 '부터'는 체언이나 부사 어 또는 일부 어미 뒤에 붙어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임.

- 19 첫 번째 빈칸에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말이, 두 번째 빈칸에는 뒤에 나오는 용언인 '크시다'를 꾸며 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기에 적절한 품사는 문장이나 용언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 20 관형사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로, ②의 '현'은 체언인 '구두'를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정말'이라는 부사가 '맑다'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고 있다.

③ '아직'이라는 부사가 '멀었다'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고 있다.

④ '솔솔'이라는 부사가 '불어온다'라는 동사를 꾸며 주고 있다.

⑤ '너무'라는 부사가 '어려웠다'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고 있다.

- 21 '꼭'은 동사 '들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ㄱ에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말이 쓰이지 않았으나, ㄴ에는 '솔직히', '그', '모든', '꼭' 모두 네 개의 수식언이 사용되었다.

② 수식언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③, ④ '그'는 '가게'를 꾸며 주는 관형사, '모든'은 '물건'을 꾸며 주는 관형사, '솔직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22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문장 안에서 다른 낱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관형사와 부사이다.

- 23 제시된 문장에서 조사는 '는', '와', '에'로 모두 3개이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24 ㄱ의 '를'은 앞말이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사인 격 조사이고, ㄴ의 '만'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조사 '는'은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고, 조사 '를'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나'는 문장의 주체가 되고, '소희'는 서술어인 '좋아해(좋아한다)'의 대상이 된다.

② '는'과 '를'의 위치가 바뀌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소희'가 '나'를 좋아한다는 뜻이 된다.

③ ㄴ의 '만'은 한정(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를' 대신 '만'이 쓰이면 여러 사람 중 오직 '소희'를 좋아한다는 뜻이 된다.

④ '를'과 '만'은 모두 조사로, 관계언에 속한다.

25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러나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낱말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므로, 관형사나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

26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감탄사이다. ①의 '아'는 칭찬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를 뜻하는 감탄사로,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오답 풀이 ② '천천히'는 '움직이네'라는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처럼'은 '너'라는 체언 뒤에 붙어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④ 제시된 문장에서 '아차'는 흔히 '아차 잘못하여'의 형태로 쓰여,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이 어긋나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이다. '아차'는 뒤에 나오는 '잘못하여'라는 동사를 꾸며 준다.

⑤ '집'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27 '어머나'와 '아이코'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이고, '아니요'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며, '여보세요'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③의 '너'는 '철수'라는 사람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28 '깜직한'은 용언(형용사), '아이'는 체언(명사), '가'는 관계언(조사), '환하게'는 용언(형용사), '웃었다'는 용언(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그', '딸기'는 체언, '는', '를'은 관계언, '좋아한다'는 용언이다. '몹시'는 '좋아한다'를 꾸며 주는 수식언이다.

③ '제', '명수'는 체언, '가', '에게'는 관계언, '말하겠습니다'는 용언이다.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독립언이다.

④ '오전', '사람', '분'은 체언, '에', '이', '입니다'는 관계언, '찾아왔던'은 용언이다. '바로'는 부사, '저'는 관형사로, 둘 모두 수식언이다.

⑤ '승우', '겨울', '예정일'은 체언, '는', '에', '보다'는 관계언, '추운', '태어났다'는 용언이다. '빨리'는 '태어났다'를 꾸며 주는 수식언이다.

29 ㄱ에는 '어제', '운동화', '학교' 3개의 체언이 있지만, ㄴ에는 '오늘', '날씨' 2개의 체언만 있다.

오답 풀이 ② ㄱ의 '새'는 체언 '운동화'를 꾸며 주고, ㄴ의 '참'은 용언 '종구냐'를 꾸며 준다. 따라서 ㄱ과 ㄴ에는 각각 1개씩의 수식언이 사용되었다.

③ ㄴ의 '아'는 말하는 이의 느낌을 나타내는 독립언이다.

④ ㄱ에는 '신고'와 '갔다'가, ㄴ에는 '종구냐'가 사용되었다.

⑤ ㄱ에는 '는', '를', '에게', ㄴ에는 '은', '가'가 사용되었다.

30 '잠들었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흐르는'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② '이'와 '에'는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④ '졸졸'과 '깜박'은 각각 '흐르다'라는 동사와 '잠들었다'라는 동사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에 해당한다.

⑤ '시냇물'과 '소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31 '나'는 사람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평평'은 동사인 '내린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② '헤엄친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③ '시험'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④ '성큼'은 '다가왔다'라는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32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볼거리'는 명사이고, '우리'는 대명사이다. '에는', '가', '와'는 조사, '좋아하는'은 동사, '많다'는 형용사, '엄청'은 부사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는 관형사가 쓰이지 않았다.

33 ㉠, ㉡, ㉢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은 수사, ㉡은 동사, ㉢은 명사, ㉣은 형용사, ㉤은 조사이다.

34 '같이'는 동사 '갈래'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35 '이'는 관형사, '책장', '소설책'은 명사, '에서', '를'은 조사, '낱은'은 형용사, '하나'는 수사, '꺼냈다'는 동사이다.

36 '참'은 잊고 있었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사용하는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② '무엇'은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③ 제시된 문장에는 '는', '로', '을' 3개의 조사가 사용되었다.

④ 제시된 문장에는 '너(대명사)', '윤하(명사)', '생일(명사)', '선물(명사)', '무엇(대명사)' 총 5개의 체언이 사용되었다.

⑤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낱말을 의미로 분류하면, 명사, 대명사, 조사, 동사, 감탄사 5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다.

37 ㉠, ㉡, ㉢, ㉣은 모두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반면 ㉤(두)은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38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은 수사이고,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형용사이다. 제시된 속담 중 ①에는 '하나'라는 수사, '미운'이라는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다.

문법 정리

179쪽

- | | | | | |
|-------|-------|------|-------|------|
| ① 형태 | ② 체언 | ③ 이름 | ④ 관형사 | ⑤ 용언 |
| ⑥ 감탄사 | ⑦ 움직임 | | | |

3 어휘의 체계와 양상

차근차근 개념 이해

180~181쪽

- 1 ○ 2 고유어 3 모양 4 ○ 5 외래어 6 ×
7 × 8 전문어 9 세대 10 직업 11 은어

기초 토크

학습 활동 문제

182~183쪽

- 1 • 고유어: 치마, 나물, 떡, 지우개 • 한자어: 색연필, 냉면, 체육복 • 외래어: 볼펜, 티셔츠, 아이스크림 2 색채 3 (1) 의향, 호감, 심정 (2) 한자어, 보완 4 햄버거, 어렵다 5 표준어, 지역 방언 6 의사소통 7 세대

시험에는 이렇게

- 1 ③ 2 ⑤ 3 ⑤ 4 전문어 5 ①

- 1 '바람', '구름', '여름'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우리 말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인 고유어이다.
- 2 외래어 역시 우리말 어휘인 것은 맞지만, 주로 다른 문화에서 유입된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므로 그 안에 우리 문화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공식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말은 표준어이다.
- 4 음악, 법률, 의학 등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는 말은 전문어이다.
- 5 '자당'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로,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든 세대에서 주로 쓰는 사회 방언이다.

보충 토익

실력 쌓기

184~186쪽

- 1 ② 2 ④ 3 ④ 4 ① 5 ② 6 ① 7 ②
8 ① 9 ⑤ 10 ① 11 ④ 12 ⑤ 13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학생이 청소년 세대가 주로 쓰는 줄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14 ② 15 ② 16 ⑤ 17 ⑤

- 1 고유어는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표현해야 하는 전문 분야의 어휘로는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다.
오답 풀이 ①, ⑤ 고유어는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던 말이나 우리말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눈', '땀', '사람'은 고유어이다.
 ③ '팔랑팔랑', '펄럭펄럭'처럼 바람에 나무끼는 모양을 표현하는 다양한 우리말 어휘, '발갈다', '발그스레하다', '불긋불긋하다' 등 붉은색을 표현하는 다양한 우리말 어휘를 통해 고유어에는 모양이나 소리, 색채를 표현하는 어휘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고유어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해 왔으므로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가 잘 담겨 있다.

- 2 나. 고유어는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구체적이고 분화된 뜻을 지녀 고유어를 보완한다. 르. 한자어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 3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외래어로 다른 문화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다. 외래어는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우리말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오답 풀이

- ①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말은 고유어이므로 고유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②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은 고유어이다.
 ③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전문어이다.
 ⑤ 지역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기에 적절한 말은 표준어이다.

- 4 '정정(訂正)하다'는 '글이나 글자의 잘못된 점을 고쳐서 바로 잡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①의 '고쳤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의 '고쳤다'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쳤다.'라는 의미를 지닌 '수리(修理)했다'와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수선(修繕)하다: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다.
 ③ 개량(改良)하다: 나쁜 점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치다.
 ④ 치료(治療)하다: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하다.
 ⑤ 수정(修訂)하다: 글이나 글자의 잘못된 점을 고치다.

- 5 고별(감기(感冒)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감기(感冒) - 인플루엔자(influenza: 유행성 감기)로, ①은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고유어이며, ④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자어이다. ⑤은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이다.

- 6 '아침', '소리'는 본래부터 우리말인 고유어이고, '일요일(日曜日)', '친구(親舊)'는 한자어이다. '게임(game)', '샤워(shower)'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외래어이다.

- 7 '바람'은 고유어에 속하므로 같은 유형의 단어로 고유어가 와야 한다. 그러나 '하늘'을 제외한 '연세(年歲)'와 '우유(牛乳)'는 한자어에 해당한다.

- 8 <보기>에는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으로 인해 우리말 오염 현상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외래어가 우리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말 오염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 문화의 자긍심이 손상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9 사회 방언은 세대, 직업, 성별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이다. 국적은 사회적 요인이 아니며 국적이 다르다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언어 내에서 어휘가 분화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

- 10 <보기>는 말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는 사례로,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사회 방언 중에서 전문어나 은어와 같은 말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우리말 어휘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의 설명과는 관련성이 없다.

④ 지역 방언의 특성에 해당한다.

⑤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11 '줄리엔(julienne)'은 채소나 고기를 길고 가느다란 성냥개비 모양으로 채 썰는 것을 이르고, '콩카세(concasser)'는 가로, 세로 5mm씩 정사각형으로 아주 작게 자르거나 다지는 것을 이르는 말로 요리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어이다. 요리사끼리는 이러한 전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인 수강생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말로 외국어에서 차용한 것이 많으며, 의미가 명확하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2 ㄱ의 '경골'은 정강이뼈, '좌창'은 여드름, '산제'는 가루약울, ㄴ의 '크루프'는 급성 폐쇄성 후두염, '트립신'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를 뜻한다. 이 단어들은 의학 분야의 전문어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사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3 학생이 말한 '문상'은 '문화 상품권'의 줄인 말로 청소년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줄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4 (가)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표준어를 쓰고 있고, (나)는 비공식적 상황이므로 지역 방언을 쓰고 있다. 표준어는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며, 제한된 집단 안에서 특수한 경우에 쓰는 말은 전문어나 은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④ 표준어는 공식적인 상황이나 매체에서 사용하면 여러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⑤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말로,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친근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15 제시된 어휘는 심마니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은어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사용된다. 은어는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언어이므로 다른 사람의 흥미 유발과는 관련이 없다.

16 고객과 상담원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상담원이 일반인인 고객에게 전문어를 사용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말이며, 비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말은 은어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상담원의 말 중에서 '바이오스', '로그', '로더'는 컴퓨터 관련 전문어로, 전문어는 그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③ 전문어는 어휘의 의미가 명확하며 그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

④ 전문어를 사용할 때 대화 상대가 일반인인 경우 전문 분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인에게 말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가)의 '알라 브레베(alla breve)'는 2분의 2박자를 이르는 말로 음악 분야의 전문어이고, (나)의 '생파(생일 파티)', '생선(생일 선물)'은 청소년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줄인 말이다. 이와 같은 사회 방언은 같은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며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강화하지만,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문법 정리

187쪽

① 고유어 ② 외래어 ③ 사회 ④ 전문어 ⑤ 은어